



[해설] 1세대 카페 '커피빈' 매각 수순? 버랑 끝 프랜차이즈 03



Economy

코스피	2370.86 (+12.45)	코스닥	830.67 (+6.02)
금리 (국채 3년)	0.934 (+0.023)	환율 (원/달러)	1131.90 (-7.50) (21일)



구호 외치는 유가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뉴스시

뉴메트로 5주년 기업과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피할 수 없는 '뉴노멀' 노동법 대전환 타이밍

2부. 포스트 코로나

② 언택트 경제 가속화

재택·유연근무제 등 환경 변화에 임금 체계 등 관련법 개정 급물살 韓 노동법 30년전에 머무른 상태 노사관계 선진화 위한 개혁 필요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노동법 개정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무형태가 다양화하고, 언택트 산업이 확산하는 등 노동개혁 입법의 당위성이 명확해지면서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재택(원격)근무를 했고, 재택근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업장은 1831곳으로, 대상 근로자는 1만 43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34개 기업에서 72명이 재택근무를 한 것과 비교하면 대상 근로자가 200배가량은 셈이다.

올해 남은 4개월을 고려하면 재택근무 근로자는 2만 명 안팎에 달해 전년 대비 300배가량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 상당수는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재택근무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 수준에 맞게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연근무제를 선택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며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은 인센티브 부여, 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 혜택을 받는데 민간이 자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사업주나 노동계의 인식 전환도 필

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구조와 노동형태의 변화가 급속화하자 관련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공정경제를 위한 기업 구조 개선과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야 우리나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우리나라 노동법은 3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관계법이 대폭 바뀐 뒤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도 같았다"라며 "코로나 이후 4차 산업 전환 과정에 접어들 만큼 경제·사회 전반이 새로운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법을 개편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문제를 개선하고 노동시간도 유연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법 개정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제안이 나오자 박근혜 정부 시절의 노동 유연화 등 반(反)노동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 입법안은 ILO(국제노동기구) 기준과 전혀 상반되고 오히려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을 발의해서 국회로 넘겼다"며 "그 어떤 내용보다 심각한 내용이 담긴 현 정부의 입법 발의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연대해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4일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3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반도체 격변기, 삼성에 쏠리는 눈 '100조 실탄' M&A 언제 나서나

美 이어 베트남서도 투자 러브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에서도 투자 요청을 받았다. 반도체 업계 빅딜이 이어지는 상황인 가운데, 100조 원 규모 '실탄'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일 베트남에서 응우옌 쉰억 폭 총리와 면담했다. 이날 폭 총리는 예상대로 이 부회장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우선 생산 활동을 점검하고 투자 확장 수요를 확인하겠다는 것. 자리에 노태문 무선사업부장과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동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 초 미국으로부터도 투자 요청을 받았다. 일단은 오스틴 공장에 EUV 설비 도입을 고려중이

긴 하지만, 대규모 투자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안팎에서 대규모 투자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외 생산 기지는 중국 시안과 미국 텍사스 오스틴 2곳뿐.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경쟁 업체들이 추격을 본격화하면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 지분을 보유한 것까지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D램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40%대, SK하이닉스가 30%대 점유율을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절대 강자인 TSMC가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점유율은 TSMC가 53.9%, 삼성전자가 17.4%로 좁혀졌다

치를 줄이지 못했다. TSMC가 미국 등에 투자를 가속화하는 상황, 삼성전자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 재편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엔비디아가 영국 ARM을 인수하며 몸집을 삼성전자 이상으로 키웠다. AMD도 삼성전자 인수설이 돌았던 자일링스 인수를 타진하며 빅딜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이같은 인수·합병 바람은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나 빅딜에 나설 여력은 충분하다. 2016년 이후 대규모 인수 합병을 완전히 멈춘 상태, 현금보유고가 100조원을 넘는다. 그동안 자일링스나 NXP 등 우량 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결국 아무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부회장 거취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김재용 기자 juk@



2020 제약 & 바이오 포럼 개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0 제약 & 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이사가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실수요자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 총력"

홍남기 부총리 '경제상황 점검회의' 4분기 내수·고용 회복이 핵심 과제

정부가 최근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 당의 지원과 당정 협업을 기대한다"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산 영향에 따라 내수와 고용 타격이 다시 나타났기에 이를 회복하는 것이 4분기 핵심과제"라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등 대내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는 이를 위해 소비쿠폰을 재개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진행하는 등 내수 활력 패키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지원 등을 마무리하며 일자리 창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경제 법안과 예산안 심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도 잘 통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내려간 만큼 희망을 갖고 일어서 앞을 향한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며 "정부부터 경제 반등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점포정리 vs 리뉴얼... '비대면 시대' 돌파구 찾는 대형마트

대형마트, 4년간 점포 20곳 문닫아
홈플러스 안산점 등 4곳 자산유동화
롯데마트 연내 부실점포 16곳 정리
"안정적 사업위해 구조조정 불가피"
이마트 대형마트 유일 '실적개선'
지난달 매출 1.6조 전년비 15.7% ↑

국내 유통 시장을 장악했던 대형마트들이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통 공룡'이라 불리며 신규 매장을 연달아 오픈하던 것과 반대로 점포 정리에 나서며 몸집을 줄이려는가 하면,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재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형마트 20여곳이 문을 닫았다. 홈플러스는 올해 안산점, 대전방점, 대전둔산, 대구점 등 네 개 점포를 자산유동화했다. 몇년동안 지속된 오프라인 유통업의 불황과 코로나



강희석 이마트·SSG닷컴 대표이사



강희태 롯데그룹 유통BU장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19의 영향으로 매출감소가 이어지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롯데마트도 점포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마트는 연내 부실점포 16곳을 정리한다. 지난 5월 양주점과 천안아산점을 폐점했고, 6월에는 VIC신영점(창고형 할인점)의 문을 닫았다. 7월에는 의정부점과 천안점, VIC킨텍스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9월에는 서울 구로점과 도봉점(빅마켓),

경기 이천 마장휴게소점의 폐점 소식을 알렸다. 대구 칠성점은 오는 12월 31일 문을 닫는다. 업계 관계자는 "쇼핑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대형마트는 지속되는 매출하락세에 놓여있다"며 "안정적인 사업운동을 위해서 몸집 줄이기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코로나19 직

격탄을 맞은 가운데,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이마트는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온·오프라인 통합 시너지가 빛을 발했고,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을 확대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는 올해 1분기(1~3월) 48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2분기(4~6월)에는 4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앞서 이마트가 공시한 지난달 잠정실적에 따르면, 총 매출은 1조

5681억원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5.7% 증가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할인점 매출이 11.6% 늘어났다는 점이다. 특히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노브랜드 등 전문점은 각각 36.4%, 18.4%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신선·가공식품 부문을 강화하는 '그로서리 혁신'을 내걸고 점포 리뉴얼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한 다변화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마트는 오프라인 점포 정리보다는 리뉴얼과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경영 전략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이마트부문은 2021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강희석 이마트 대표를 SSG닷컴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이마트와 SSG닷컴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된 것이다. 강 대표는 지난 1년동안 매장 구조 혁신, 리뉴얼, 전문점 사업 재편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낸만큼 온·오프라인 통합 경영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UNIST 김건태 교수가 '금속 이산화탄소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이노, 이산화탄소 저감 실증화 진행

ESG경영 강화, 책임투자 확대

SK이노베이션이 그린벨런스2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CLX가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공동으로 이산화탄소(CO₂) 저감 시스템 실증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환경 부정영향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전략 방향인 '그린벨런스2030' 성공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해, 이산화탄소를 본질적으로 저감하게 된다.

특히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책임투자를 더욱 확대하게 됐다. 대외적으로는 대기환경 오염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자원으로 재활용하게 되는 셈이다.

양측은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김건태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금속 이산화탄소 배터리 시스템'의 확대 가능성 및 상업화를 검증한다. 이 시스템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교수팀은 이미 연구단계에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

물에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제거되고, 전기와 수소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에는 수소이온(H⁺)이 많아져 산성을 띄게 되며, 이때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수소(H₂)도 생산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산화탄소의 전환 효율이 약 6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는 실증화 사업을 위해 UNIST 등이 설립한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에 출자 형태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올초부터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은 현재 공공기술 사업화 컨소시엄을 지원해, 지역 신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연구기관 Big 선도모델 사업'에 지원한 상태다.

양측은 향후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연도가스의 이산화탄소(CO₂),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가능성을 테스트한다. 여기서 연속공정 사업화 등 상업성이 확인되면, 함께 공동 사업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개혁입법, 숙원 이뤄... 책임수사 확립을"

文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경찰, 사명·책임감으로 어려움 극복
'가장 안전한 나라' 만들어 가는 중"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안전이 일상 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감토 어디에서든 경찰이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하다. 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활약한 경찰의 노고를 치사했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 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 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관련자 2000여명 검거 및 185명 구속 ▲아동학대 점검팀 구성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 발굴 및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 집중 점검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

며 경찰을 칭찬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비롯한 경찰 개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관련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시 바란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재차 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업무 현장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순직하는 등 사고가 빈번한 점을 의식한 듯 기념식에서 경찰 정신을 실천하다 순직한故(고) 이종우 경감,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현양된故(고) 이준규 총경,故(고) 유재국 경위의 유가족뿐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중 공상을 입은 김진영 순경 등과 자리에 함께해 위로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9월 생산자물가지수 9달째 상승

한은, 농림수산물 지수 역대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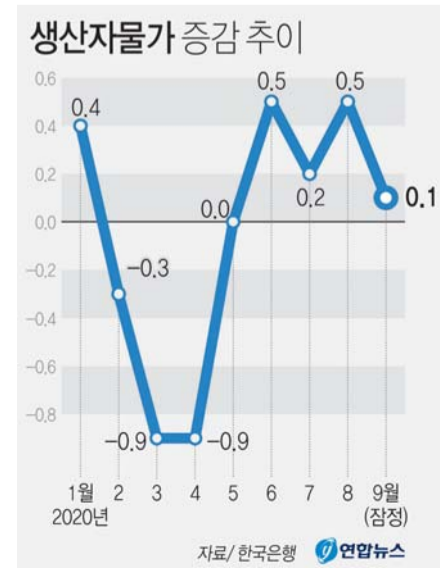
생산자물가가 지난달까지 9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태풍과 장마 등으로 농림수산물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3.35(2015=100)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지난 6월 이후 4개월째 연속 올랐다.

특히 농림수산물이 태풍과 장마 등으로 4.9%나 상승했다. 지난달 농림수산

품 지수는 139.66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5년 이래 최고치다. 농산물이 7.1% 상승한 가운데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4.2%, 1.3% 올랐다.

품목별로는 배추(30.5%)와 풋고추(88%), 건고추(50.6) 등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공산품은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 대비 0.1% 내렸다. 석탄 및 석유제품이 3.3%,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2% 하락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1세대 카페’ 커피빈마저 매각 수순?... 벼랑 끝 프랜차이즈

커피빈, 1500억에 매물로 나와 사측 “진행사항 없어, 사실무근” 할리스·투썸 등 잇단 매각에 커피빈 매각 진위 놓고 촉각

SPC·카페베네·공차 등은 시장 침체에 해외로 눈 돌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성장 정체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커피빈코리아(이하 커피빈)는 삼일PwC 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삼고 인수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지분 100% 희망 매각가는 1500억 원 수준이다. 희망 매각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커피빈 측은 “매각설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매각과 관련돼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따로 없다”며 입장 표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커피빈 매각설 진위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의 매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 3위권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커피는 KG그룹에 1450억원에 매각됐다. CJ푸드빌은 지난해 투썸플레이스를 홍콩계 사모펀드(PEF) 앵커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했다. 또한 ‘뚜레쥬르’ 매각설이 처음 제기 됐을 당시 CJ푸드빌은 매각설을



서울의 한 커피빈 매장. /뉴시스

부인했지만, 결국 M&A 시장이나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식음료 프랜차이즈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데다 외식 프랜차이즈 매출 증가하고 있기에 인수 후보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뚜레쥬르, 파파이스, TGI 프라이데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이 매물로 나와 있다.

특히 커피빈은 국내 한정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해외 진출이 불가능하다. 커피빈은 196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탄생한 브랜드지만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커피빈코리아는 2000년 6월 설립돼 수입 브랜드 유통업체인 스타벅스가 2001년부터 운영 중이다.

반면 공차코리아의 경우 홍콩 등 해외 시장 확장 가능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아 3500억 원에 거래됐다. 최근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와 차별점을 지닌다.

침체한 국내 시장과 반면 해외시장 확장 가능성을 발견한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해외시장 공략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상황이지만, 장기간 시장 성장은 정체한 상황에서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기에 해외시장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는 전략이다.

커피프랜차이즈 전문점 카페베네는 대만에서 식음료와 유통 사업을 진행 중인 ‘안평문창유한공사(安平文創有限公司)’와 대만 중남부 지역 진출을 위한 MF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향후 5년간 대만 중남부 지역 내 카페베네 매장 40곳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브로드웨이점. SPC그룹은 지난 6월 ‘파리바게뜨’ 캐나다 현지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내년 상반기 토론토, 밴쿠버에 첫 매장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미주 지역 사업 확대를 계획한다. /이현진 기자 lhj@

앞서 카페베네는 지난 2013년 카페베네 대만 1호점을 오픈하며 대만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대만 내 1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대만 오피스 중심가인 네이후 지역에 신규 BI 매장을 오픈했다. 해당 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 등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캐나다에 진출하며 북미 시장 확대에 나섰다.

SPC그룹은 지난 6월 캐나다에 현지 법인인 ‘파리바게뜨 캐나다’ 설립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토론토와 밴쿠버 등 주요 도시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이다. 앞서 SPC그룹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를 4대 거점으로 삼는 글로벌 사업 확대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는 2030년까지 캐나다 내 100개 이상 점포를 열겠다는 목표다.

SPC그룹은 현재 프랑스, 미국,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5개 국가에 진출해 400여 개의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중국 톈진에 생산 공장을 준공했으며, 9월에는 캄보디아에 현지업체 손잡고 조인트벤처를 설립한 바 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대만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프랜차이즈 사업과 유통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라며 “이미 해당 방식으로 기업회생을 조기 졸업한 성공 역량을 기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카페베네는 유자생감차 등 과일 청 제품을 필리핀에 수출, 수출액 100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청춘 대신 파리만... “매출 80% 줄어, 권리금도 포기”

르포 | 식당·유흥업 줄폐업... 신촌 대학가 가보니

“대학가는 3월과 9월이 가장 성수기다. 개강총회나 각종 모임 등도 많고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을 보며 들뜬 마음으로 장사를 이어왔다. 그런데 이제 손님은 커녕 길을 지나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다. 매출도 많이 줄었다. 처음엔 30%, 50% 정도 줄며 유지비만 겨우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80%까지 줄어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박경자 씨가 21일 전한 하소연이다.

신촌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등 대학교가 밀집돼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상황이 가장 붐비던 곳 중 하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발길이 끊기자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생 발길 ‘뚝’ 축적, 개강총회 등으로 성수기인데 손님은 커녕 거리 자체가 텅 빈 건물 곳곳 임대 안내문...상권 ‘냉골’ 노래방 업주 “많이 받아야 하루 3팀”

분기 서울 상가 수는 37만321개로 지난 1분기 대비 2만1178개 줄었다. 특히 음식 업종과 유흥업소 등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업종 상가는 1분기 13만4041개에서 2분기 들어서며 12만4001개로 감소했다. 노래방과 PC방 등을 비롯한 유흥업소도 1분기 1만1714개에서 2분기 1만454개로 10.8% 줄었다.

실제 이날 신촌에서 코로나19 이후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적힌 안내문이 쉽게 보였다. 임대 문의가 붙은 건물도 눈에 들어왔다. 한 건물에는 ‘권리금 없음’이라는 임대 문의 종이 붙어 있었다.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신촌역 인근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구모씨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며 씩씩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등·하굣길 테이크아웃 주문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니 매출이 거의 반 토막”이라며 “거리두기가 1단계로 되면서 나아지지 않을까 여전히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 씨의 말처럼 이날 신촌 일대에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왼쪽부터)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과 권리금 없이 임대 매물을 내놓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백지연 기자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 등교 시간에도 불구하고 텅 빈 모습이다.

오전 시간을 고려해도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노래방 업주들의 한숨도 이어졌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50대 윤모씨는 “코로나 이후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가 크다”며 “1단계로 들어서도 언제 또 영업 중단을 해야 할지 몰라 두렵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1단계 이후 영업은 가능해졌지

만, 사람들도 노래방은 아직 꺼리는 분위기”라며 “하루 많이 받아도 서너 팀 정도”라고 덧붙였다.

하반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촌에선 계절별로 축제를 진행하며 인파를 모아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축제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1면 ‘뉴메트로 5주년’서 계속

재계 “유연한 노동법 고용시장 활력 유도”

한편, 고용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의 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의 등장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과 노용래 의원은 최근 이른바 ‘전 국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발의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폐지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택배 노동자 사망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법안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기업의 육성과 산업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법 개정도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언택트’로 대표되는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업무환경으로의 전환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환영’ 입장으로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등을 유연화하면 고용시장에 활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따라온다는 게 재계의 진단이다.

/이현진 기자 lhj@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노래방이 ‘정상 영업중 소득환비’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기업 견제장치” vs “헤지펀드 먹잇감” 상법개정안 이견

정부-재계 ‘공정경제 3법’ 공방

류영재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상정안건 99.64% 원안대로 가결
 분리선출로 이사회 독립성 보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감사위원 선임 때 3%를 적용하면
 상장사 87% 헤지펀드 인사 선임
 군 작전회의에 적군 참여하는 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1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주최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류영재 포럼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여기서 ‘3법’은 상법 일부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세 가지를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경제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3%를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이다. 주식회사 운영 과정에서 대주주를 견제해 공정한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재계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은 감사위원 3명 중 최소 1명을 분리선출 하자는 것이다. 통상 감사위원은 이사를 선출한 뒤 이들 가운데 감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사회

구성에는 대주주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위원 역시 대주주의 입맛대로 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와 함께 감사 분리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주주의 거수기에 머문다는 감사 제도를 정상화하고 기업 경영을 투명화한다는 취지다. 21일 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류영재 포럼 회장은 성명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면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올바른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를 향한 걸음마에 불과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그리고 이를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견제장치”
 류 회장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99%가 원안 그대로 가결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사회가 사실상 대주주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어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류 회장은 “이사회에 상정된 연간 6722건의 안건 중 99.64%가 원안 그대로 가결되고 그 중 단 3건만이 부결되며, 그 중에서도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안건은 100% 가결된다”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재계에서 우려하는 ‘기술유출’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9년 이전에는 1명이 아닌 전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증권거래법이 존재했지만 재계가 우려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

류 회장은 “2009년까지는 1명이 아닌 전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수 있었지만 재계에서 주장하는 기술유출 등의 문제가 보고된 적이 전혀 없다”면서 “감사위원 최소 1명에 대한 분리선임은 현재 금융회사에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최소한의 독립성 보장 장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 기관투자자를 많이 접해본 근거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뮤추얼펀드는 경영에 참여할 시간적인 여유도, 관심도 없다”면서 “아주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권에 반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갈라파고스 규제”
 반면 재계는 상법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서 감사를 선출하게 되면 결국 해외 투기 세력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외부 주주가 연합해 감사 선임에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게 되면 상장사 87%는 헤지펀드가 추천한 인사가 선임될 것”이라며 “해외 투기자본과 국외 경쟁기업 추천 인사가 감사 겸 이사에 선임되는 등 우리군의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AF가 국내 15대 주요 상장사

의외국인 지분율과 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 지난해 현대차 주총에서 헤지펀드 엘리엇의 사외이사 선임 당시 외국인 주주 투표 성향을 분석한 결과다. 당시 엘리엇이 현대차 사외이사로 추천한 3명에 대한 외국인 주주의 찬성률은 각각 45.8%, 49.2%, 53.1%였다. 또 정 회장은 “소액주주 보호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감사나 이사 선임 제도를 통해 외국의 경쟁기업이나 투기자본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와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우리 기업의 일상 경영관련 비밀정보가 외국 경쟁기업이나 투기자본으로 새나갈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적군 작전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반면, 적군은 우리 군 작전회의에 참여해 비밀을 빼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상법·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자본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 도입 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韓-英, 과학·기술협력 저변 확대 나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화상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국 기업에 너지산업전력부와 공동으로 21일 ‘제14차 한-영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의는 1985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공동위는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력부 해리엇 윌러스 국제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공동위에서는 신규 공동연구 제안 및 기간 진행했던 협력 사업들의 평가 등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한국연구재단과 영국 과학연구위원회는 감염병 분야 공동 연구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채윤정 사전기자 echo@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맨 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맨 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회 명문장수기업 수어식’에서 수상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기부, 종합해사 등 5곳 ‘명문장수기업’

중소기업인 선일금고제작, 유엔아이, 종합해사, 한방유비스 그리고 중견기업인 이화다이아몬드공업이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에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들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5회 명문장수기업 수어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19곳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명문장수기업들이 좀더 확실한 혜택을 원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공공구매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술보증기금 보증시 보증료 감면 혜택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차기 이사장에 ‘쌍병두’?... 후보 4명 압축

(손병두·민병두)

정지원 KRX 이사장 임기 곧 만료 후임자 모집공고 없이 소문만 무성 손병두 선두지만 독보적 ‘1강’ 없어
 정지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의 임기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임자에 대해선 소문만 무성하다. 거래소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정 이사장은 앞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은 이사장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임기 종료 한 달 전쯤부터 시작됐던 모집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임기는 이달 말 2017년 11월 2일부터 시작될 3년 여정의 종지부를 찍지만 이사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만 구성된 상태다. 거래소 정관에 따르면 거래소 이사장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 선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선임절차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자본시장 전반이 시끄럽다는 점과 노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등 갖가지 추측만 나오고 있다. 거래소 내부와 금융권에서도 “이 정도로 선임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거래소 이사장은 사외이사 5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대표 각 1명, 금융투자협회 추천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주주총회에 추천하면 주총에서 최종 선임된다. ◆손병두 선두?...민병두·정은보·유광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열 하마평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사장 후보군은 4명으로 압축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거론된다. 거래소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차관급 경제관료 출신이 오는 것이 관행이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가장 선두에 있지만 아직 독보적인 ‘1강’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 거래소 관계자도 “언론 보도 외에는 추측만 무성할 뿐 들리는 얘기가 전혀 없다”며 “누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1964년생인 손 부위원장은 인창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브라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G20기획조정단장,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사무국장,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국내외 금융 정책에 모두 밝다는 점에서 차기 거래소 이사장의 적임자로 꼽힌다. “학구적이고 온화한 성격”이라는 것이 내부 평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에 대해 “점잖고 학구적인 편으로 적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에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들이 뽑은 ‘달고 싶은 상사’에 3차례 뽑혔다는 점에서 신망도 두텁다. 민병두 전 의원은 거래소뿐 아니라 차기 은행연합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으로도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그 역시 이를 의식한 듯 보인다. 개인 휴대전화 작신을 금지해 놓은 채 차기 행선지에 대해 침묵으로 답하고 있다.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치권의 ‘금융통’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8년 동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송태화 기자 avin@

수협은행장 재공모 11명 도전... 인재풀 늘어도 내실은 “글썸”

1차 모집서 적격후보 찾지 못해 수협 행추위, ‘관료출신’ 고집 3차 공모 이어질 가능성 높아

차기 수협은행장 공모에 총 11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다만 업계안팎에서는 이번에도 행정추천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들이 요구하는 ‘관료출신’이 없어 3차 공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수협은행장 2차 공개모집에 11명이 지원했다. 앞서 수협은행 행정추천위원회는 1차 공개모집을 통해 5명의 후보자와 면접을 진행했지만 적격후보를 찾지 못했으며, 2차 공개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2차 공모에 새롭게 참가한 지원자는 6명”이라며 “여기에 1차 공모에 참가했던 지원자 5명이 모두 재지원 하면서 지원자는 총 11명이 됐다”고 말했다.

1차 공모에 참가한 지원자는 강명석 수협은행 전 감사, 고태순 전 NH농협캐피탈 대표, 김진균 수협은행 경영전략그룹 수석부행장, 김철환 수협은행 기업그룹 부행장, 손교덕 KDB산업은행 사외이사 등 5명이다.



강명석 전 수협은행 상임감사



김진균 수협은행 수석부행장



김철환 수협은행 기업그룹 부행장



고태순 전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



손교덕 현 산업은행 사외이사



강철승 한국수산업정책포럼 대표



박백수 우체국금융개발원장



박석주 전 수협은행 부행장



이길동 전 수협중앙회 신용부문 수석부행장



정춘식 전 하나은행 부행장

2차 공모에 참가한 지원자는 강철승 한국수산업정책포럼 대표, 박백수 우체국금융개발원장, 박석주 전 수협은행 부행장, 이길동 전 수협중앙회 신용부문 수석부행장, 전봉진 전 삼성증권 영업본부장, 정춘식 전 하나은행 부행장 등 6명이다. 11명 전체 지원자 중 수협 측 전·현직 인사는 5명, 외부 금융권 인사는 6명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인재풀 확대에

도 행정추천위원회가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수협중앙회 측 행추위 위원들은 수협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금융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출신 금융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공격적인 영업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추진하고, 공적자금 관리 명목의 관료출신을 고집하는 상황이다. 수협은행은 외환위기 여진이 남아 있던

지난 2001년 공적자금 1조100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수협은행장 선임을 위해 구성된 행추위 위원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추천한 사외이사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인물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장 인선을 위해선 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동기가 필요한데, 정부측 위원 3명과 수협중앙회 측 위원 2명이 대립하면서 4명의 동

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1차 공모 당시에도 수협중앙회 측 위원은 내부출신 지원자인 강명석 수협은행 전 감사와 김철환 수협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에게 표를 던졌지만 정부측 위원이 이를 반대했다. 지원자 중 강명석 수협은행 전 감사는 금융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상임이사 겸 코인재개발원장을 지낸 전력이다. 손교덕 산은 사외이사는 BNK경남은행장을 역임했지만 1차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다. 2차 공모에 이 같은 경력이상을 보유한 ‘관료출신’ 지원자가 없어 또한차례 미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상환 부담까지 지려는 관료출신 지원자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2차 공모에 이전 지원자들보다 더 나은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가 없는 상황으로 봐서는 재공모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행추위는 오는 26일 서류전형 결과를 발표하고, 면접 대상자를 추려 28일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한편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동빈 행장은 차기 수협은행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임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크라우드펀딩 판 키운다... 발행한도 확대

발행한도 연 15억에서 30억으로 상향 벤처기업, 자금조달 용이하도록 지원 사업 수익지분 50% 이상으로 완화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한도가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시, 사업에 대한 수익지분 비중은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창업 벤처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받고, 중견기업등과의 공동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한도를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경우 크라우드펀딩만으로는 충



크라우드펀딩 /유도이미지

분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 한도확대는 주식만 적용된다. 채권의 경우 연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분야도 확대한다. 문화사업, 신기술개발, 산업재산권창출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을 준용해 금

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시, 중견기업과의 공동프로젝트가 용이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수익지분 비중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춘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매투자중개업자)의 유지요건은 강화한다. 유지요건은 등록시 필요한 자기자본 5억원 중 70%인 3억5000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행상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이 같은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미달시 퇴출이 1년간 유예됐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유지조건 위반 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 월로, 미달시 퇴출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나유리 기자

KB금융, 산업진흥원과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진출·투자유치 협력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서울산업진흥원과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KB금융의 핀테크랩인 KBI노베이션허브와 서울산업진흥원 산하의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기관인 인베스트서울센터는 핀테크·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들에 대해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진출과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상호간 협력의 첫번째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 10개사가 참가하는 ‘글로벌 챌린저스 경진대회’를 22일 개최한다.

참여 스타트업 모두에게는 KB금융



KB금융지주 KBI노베이션허브 고창영 센터장(오른쪽)과 서울산업진흥원 인베스트서울센터 정재욱 센터장이 지난 19일 KBI노베이션허브센터에서 협약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

과의 협업 기회를 연계해주고, 양 기관의 다양한 해외 투자 유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스퀀업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우수기업으로 뽑힌 3개사에게는 총 2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프놈펜상업은행, 전자결제 대출 상환 협약

디지털 금융서비스 강화

JB금융그룹 손자회사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은 최근 태국 전자결제업체 ‘트루머니’와 전자결제 대출 상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프놈펜상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트루머니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트루머니는 태국 재계 1위인 CP그룹

의 디지털 금융 자회사 어센드머니가 운영하는 업체다. 현대 태국과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했다. 동남아시아에서 6만5000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거래액은 80억 달러(약 9조3800억원)에 달한다.

신창무 프놈펜상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출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



신창무 프놈펜상업은행장과 태국계 전자결제업체 트루머니 관계자가 전자결제 대출 상환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JB금융그룹

으로 강화해 캄보디아 시장 공략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우리銀 ‘위니미니’, 태블릿브랜치 고도화

종이 서식,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우리은행은 고객을 직접 방문해 금융 상품 가입 및 상담이 가능한 원스톱 금융서비스인 태블릿브랜치를 고도화한 ‘위니미니(미니)’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태블릿브랜치를 도입한 이후로 변화하는 금융환경 및 영업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스템을 재구축한 것이다.

위니 미니는 개인고객에 대한 여·수신 신규 및 제신고 기능 외에도 ▲기업

고개에 대한 여·수신 상담 및 신규 ▲QR코드를 통한 신용카드, 개인형 퇴직연금(IRP), 청약저축 등 금융상품 간편 가입 ▲가맹점결제계좌 신청 등으로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종이로 작성하던 각종 서식을 전자문서에 작성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금융거래뿐 아니라 위변조 및 분실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비밀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 휴대폰으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암호화된 번호를 생성하는 비밀번호 사전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영석 기자

LG·삼성 '웃고', SK '울고'... 2차 전지가 가른 실적 희비

배터리업계 3분기 실적

LG화학 영업익 10년 만에 최대
유럽 수요 증가... 4분기도 기대
삼성SDI 영업익·매출 증가 추정
SK이노 배터리 등서 적자 전망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한국 배터리 업계 주요 3사가 2차 전지 부문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2일 잠정실적 발표에 이어, 이날 3분기 실적을 공시했다. LG화학은 이번 3분기 연결기준 매출 7조5073억원, 영업이익 902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영업이익의 경우 약 10년(38분기) 만에 분기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대 영업이익은 2011년 1분기 8313억원, 최대 매출은 지난해 4분기 7조4510억원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낸 것이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화학은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사업에서도 지난 2분기에 이어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드러냈다.

2차 전지 부문 매출은 3조1439억원, 영업이익은 1688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2분기 대비 매출은 2조8230억원에서 11%, 영업이익은 1555억원에서 9%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2조2102억원, 712억원에

서 42%, 137% 늘었다. LG화학은 이번 3분기 석유화학 사업이 호조세를 나타내며,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2차 전지 부문은 점차 가파른 성장세가 예견되고 있다. LG화학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매년 30% 이상 성장해, 2024년에는 배터리 분야에서만 30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2차 전지 부문 관련 LG화학은 "유럽 주요 고객사의 신규 전기차 모델 출시와 원통형 전지 판매 증가, IT 제품 공급 확대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4분기에는 자동차 전지 및 전기차용 원통형 전지 공급 확대로, 매출 성장 및 이익 증대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LG화학 CFO 차동석 부사장은 "3분기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연초부터 내부 효율성 제고, 현금 흐름 안정화, 미래를 위한 투자 지속 등 핵심 과제에 집중해 온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

며 "향후 매출 성장과 수익 확대 등 실적 개선은 지속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앞두고 있어 더 주목받고 있다. 물적 분할 이전 3분기 실적 발표가 배터리 신설법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앞서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고, 분할되는 배터리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자사가 소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의 회사분할안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12월 1일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LG에너지솔루션(가칭)'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도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2차 전지 부문 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SDI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공시 예정이며, SK이노베이션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3분기 전체 실적에 대해

삼성SDI가 이번 3분기 선방하고, SK이노베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삼성SDI는 매출 2조9462억원, 영업이익 204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14.7%, 23.4%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매출 9조4055억원, 영업이익 1028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 68.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투자증권 원민석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회복에 따라 지난 2분기 인식했던 원유 재고 관련 손실이 소멸될 것이나, 부진한 정유 업황 지속으로 인해 실적 개선 폭이 제한됐다"며 "내년 상반기 분림막 자회사 상장 및 배터리 부문은 긍정적이나, 배터리를 포함한 기타 부문 영업적자는 전 분기 대비 그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이스타 노조 "대량 해고사태, 당정서 해결을" 'LG OLED', 어벤저스 마블스튜디오 입성

범시민사회단체와 해결 촉구
"죽어가는 노동자 외면 말아달라"

결국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진 이스타항공에 대해 범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범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벌어진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 관련 고용유지 및 운항 재개를 위해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책임있는 조치를 하고 나서라는 것이다. 이날 조종사노조가 발표한 성명에는 노동, 정당, 인권, 법률, 종교 등 분야의 범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은 "1월에 시작한 4대 보험료 횡령, 2월부터 지금까지 임금체불, 8월 100여명 희망퇴직, 9월 640명 해고 예고, 10월 14일 대량 해고 등 이것이 이스타항공에서 노동자들이 무참히 짓밟힌 과정이다"라며 "이제 400여 명의 노동자만이 이스타항공에 이름만 올려놓고, 후속 정리해고만을 기다리고 있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범시민사회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조했다.

이날 범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상직 의원은 국민적 공분 속에서 당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탈당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타항공과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고 복당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저 말 뿐이었다. 조만간 115명을 추가 정리해고 할 예정이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정감사에서 실제 이상직 의원을 감싸는데 급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노동, 정당, 인권, 법률, 종교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연대할 것임을 선언한다"라며 "정부 여당 지도부가 책임있게 이스타항공의 고용유지와 운항 재개를 위해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임금체불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4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조사에 진척이 없자, 또 다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고 나선 것이다.

/김수지 기자

LG전자, '한국 IR대상'서 2년 연속 우수상

LG전자는 21일 한국IR협의회 주최 '2020 한국 IR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수기업군상'에 이은 2년째다.

LG전자는 적극적인 IR 활동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는 공로로 이번 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그동안 투자자 의견을 귀담아 듣고 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회사의 실적과 중장기 전략을 설명하는 국내외 투자자설명회(NDR), 분기별 실적발표회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분기부터는 국문과 영문으로 나눠 실시하던 실적발표회의 컨퍼

런스콜을 하나로 통합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 중이다.

실제로 LG전자는 2016년 1분기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해 투자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적을 전달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정보도 적시에 공시해왔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에 대한 IR 역량도 강화해왔다. 특히 ESG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충실히 공개한다.

/김재용 기자

디즈니와 OLED 콘텐츠 결합 맞춘

어벤저스가 LG OLED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진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월트 디즈니 자회사 디즈니 스튜디오랩과 OLED 기술 협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디즈니 스튜디오랩은 첨단 영화 촬영 기법 및 편집 기술을 연구하는 곳으로, 앞으로 3년간 LG디스플레이와 디즈니 영상 전문가를 위한 콘텐츠 제작용 OLED TV를 시작으로 OLED 기술과 디즈니 콘텐츠를 결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협업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우선 '마블 스튜디오

오'에 88인치 크기 'LG 시그니처 울레드 8K' 등을 설치한다. '어벤저스' 등 영화 제작 및 후반 편집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후반 편집이 영상 원본을 제작자 의도대로 보정해야하는 만큼 높은 성능의 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OLED는 화소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색 정확도, 명암비, 시야각 등이 LCD 대비 우수해 제작자가 의도한 원작의 색을 왜곡없이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디스플레이로 평가받는 만큼, 마블 스튜디오는 OLED TV를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영상미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눈가 관리, LG 프라엘 아이케어로 하세요"

LG전자는 LG 프라엘 아이케어(사진) 예약판매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출하가는 59만9000원이다.

21일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진행한다. 배우 이유리가 직접 아이케어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이케어는 눈 주변 피부 톤과 탄력은 물론, 진피 치밀도, 다크서클, 눈 밑 지방 등을 집중 관리해 주는 눈가 전용 뷰티기기다. 프라엘 8번째 신제품이다.

LG전자는 많은 고객들이 눈가 피부에 관심이 높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를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 제품을 개발했다. 피부 두께가 얇고 피지 분비도 적어 자외선, 화장, 표정과 수면 자세 등 일상 속 약한 자극에도 쉽게 영향을 받아 탄력 세포가 쉽게 손상되는 눈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이케어는 고글형 디자인으로 안경



처럼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 무게는 125g으로 가볍고, 얼굴 둘레에 따라 안경다리의 사이즈 조절도 가능해 편안하면서도 피부에 최대한 밀착하는 방식이다.

고객 피부 타입에 따라 총 6가지 케어 모드를 제공한다. LED 세기에 따라 베이지 모드(9분 관리)와 마일드 모드(15분 관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모드에 미세전류 세기도 1~3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선한 영향력

= 플라스틱으로부터 바다를 지키는 능력

플라스틱을 줄이는 불편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록

고래들의 터전인 바다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아픔은
줄어듭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이 되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에너지 대학생봉사단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한 가운데 황현식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총괄 사장(오른쪽)과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사장이 '교육+돌봄' 사회공헌 활동 공동 추진을 협의한 뒤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U+·포스코에너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맞손

교육+돌봄 사회공헌활동 공동 추진

LG유플러스와 포스코에너지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교육격차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손잡았다.

LG유플러스는 포스코에너지와 코로나19로 심화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및 돌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돌봄'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 콘텐츠 'U+초등나라' 서비스와 스마트패드를 인천 서구 7개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교 고학년 중심 취약계층 아동 48명에 무료로 제공한다. 포스코에너지가 운영하는 대학생봉사단 48명에게도 스마트패드를 지원, 아이들과 1대 1 학습지도가 가능토록 한다.

U+초등나라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 강의 교재로 사용된 'EBS 만점왕'을 강의를 보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EBS 스마트 만점왕' 서비스로 단독 제공 중이다.

이외에도 ▲해외 유명 영어 도서 2000여권을 볼 수 있는 리딩게이트 ▲초등 영자신문 키즈타임즈 ▲문정아중국어 ▲과학놀이교실 ▲세계 유명 출판사 영어 동화책을 AR로 읽는 U+아 이돌생생도서관 등 6종의 초등 인기 교육 콘텐츠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에너지가 운영하는 대학생봉사단 48명은 취약계층 아동과 멘토와 멘티로 1대 1로 매칭, LG유플러스 U+초등나라 콘텐츠가 설치된 스마트패드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학습 지원과 멘토링을 진행한다.

대학생봉사단은 U+초등나라로 아이들의 목표 수립 현황과 공부 시간 확인이 가능해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김나인기자

한 달 남은 '온라인' 지스타 저조한 참여에 흥행 '빨간불'

코로나 여파 온라인 중심 개최
넥슨 필두 네오위즈 등 참여
엔씨·넷마블·카카오 등 검토 중
조직위, 내주 참가사 현황 공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0'이 내달 개최된다. 지스타는 매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이 몰리며 매년 최대 규모 관람객을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스타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전 국적 확산 추이와 수능 연기 등 복합적 상황이 영향을 끼쳤다.

21일 지스타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스타2020은 내달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부산 벡스코 현장은 지스타 조직위가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시설물과 비대면 홍보가 가능한 시설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지스타 2020 게임전시(B2C) 참가사로 넥슨, 네오위즈, 크래프톤, 컴투스 등이 참가하기로 했다. 엔씨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지스타에 불참했던 넥슨은



'지스타 2019'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전경. /김나인 기자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지친 만큼 이번 행사의 활력을 띄우기 위해 참석하기로 했다.

넥슨은 지스타 행사 기간 중 신작 공개 및 라이브게임 업데이트 발표 등을 라이브 방송으로 선보이고, 자사 유튜브 채널 '넥넥'에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다. 네오위즈 또한 '지스타TV'를 통해 자사 게임을 선보이고 자체 제작 방송도 공개한다.

이번 지스타 참가는 오프라인으로 부스를 꾸려야 하는 예년과 달리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참가비용 또한 비교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참여율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상 초유 지스타 온라인 개최에 조직위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작

비 등도 만만치 않아 운영비 또한 오프라인 행사와 비슷하게 든다는 것이 조직위 측의 설명이다.

최근 몇 년간 지스타는 e스포츠와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얻으며 '하는 게임'에서 '보는 게임'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지스타 현장에서 e스포츠 대회는 큰 볼거리로 떠올랐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 개인 방송을 하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보는 일도 흔해졌다. 게임을 즐기기를 위해서 뿐 아니라 좋아하는 유튜브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를 직접 보기 위해 방문하는 팬층도 늘었다.

지스타 조직위 또한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온라인 분야 강화에 나섰다. 장기적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포함해 영상매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스타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오프라인이 개최되는 상황이었다면 온라인과 병행해 홍보 등의 효과가 좋았을 텐데 아쉽다"며 "작년부터 온라인 분야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준비를 한 만큼 올해 뿐 아니라 향후에도 보여줄 볼거리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스타 조직위는 내주 지스타 참가사 현황을 외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주민등록표본 발급도 앱으로 하세요"

SKT, 전자문서지갑 '이니셜'
행안부 '정부 24'와 연동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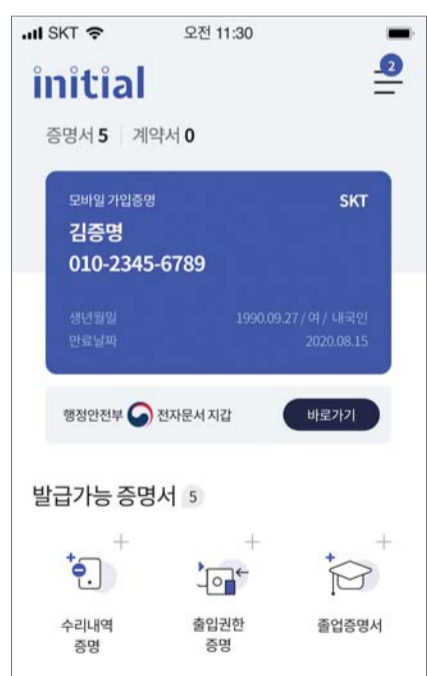
각종 민원에 필요한 공공증명서를 스마트폰 앱에서 편리하게 발급받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제출도 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DID 앱 '이니셜'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하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니셜'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는 지난달 SKT와 행정안전부가 체결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 24와 이니셜 앱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구현됐다.

SKT는 이니셜 앱을 기반으로 기존에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등 공공증명서를 종이 문서로 발급받고 수작업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모바일 간편 제출 및 자동 검증 프로세스로 디지털화했다.

정부24 앱에서 희망 증명서 발급시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이니셜 앱에서 증명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니셜 앱으로 발급받은 공공증명서는 공공기관, 신한은행·N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이미지. /SKT

H농협은행 등의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이니셜 전자문서 지갑이 지원하는 증명서는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 13종이며,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추가해 총 100여종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SKT는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업해 30여종의 전자증명서를 이니셜 앱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KT '스마트 가로시설'로 그린도시 만든다

포스코·마이크로와 사업협력 체결
빛물 저장해 가로수 수분 적기 공급

KT는 포스코, 마이크텍과 함께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협력'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정부의 그린뉴딜 8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기후·환경위기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 가로시설'을 제안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KT의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포스코의 철강 기



술, 마이크텍의 제작 기술을 결합한다.

구체적으로 KT는 빛물관 모니터링 센서, 누설전류 감지센서 등 IoT 센서를 활용한 IT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한다. 포스코는 부식에 강한 특수 철강재인 포스맥을 급수블록과 보호대 소재로 공급하고 강제 이용기술을 제공한다. 마이크텍은 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제 통합 브랜드 '이노빌드' 제품인 가로수 급수블록과 보호대를 제작 및 공급한다.

스마트 가로시설은 빛물을 저장해

가로수에 수분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급수블록과 뿌리의 용기를 방지하는 보호대로 구성된다. 급수블록에 설치된 IoT 센서는 가로수와 토양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물이 필요한 시점을 스스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으로 가로수가 고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로수의 생명주기를 늘려 도심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킨다. 또 스마트 가로시설을 적용하면 지상에 설치된 전력 및 통신선과 복잡한 지하 매설 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중화할 수 있어 도시 미관이 개선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한샘, 동반성장 위해 100억 추가 지원

하나은행과 금융지원사업 손잡고
협력사·대리점에 저리 대출 지원

한샘이 협력사, 대리점과 동반성장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샘은 지난 20일 서울 상암동 한샘 사옥에서 하나은행과 '협력업체 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한샘 협력사 동반성장 협력대출(상생펀드)'에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자칫 자금 유동성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는 한샘의 협력사와 대리점들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경영과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 홈인테리어 리딩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생펀드 조성 협약에 따라 한샘의 협력사와 대리점들은 하나은행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최대 1.5% 감면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샘은 기존 상생펀드 180억원에 이번 100억원을 더해 총 280억원의 상생펀드를



한샘 강승수 회장(왼쪽)이 하나은행 지성규 은행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샘

운영하며 협력사 및 대리점 지원에 나선다. /김승호 기자 bada@

‘대주주’ 매물 불보듯 뻔한데... 동학개미는 그래도 담는다

〈코스닥 종목〉

대대주요건 따른 양도세 공포 기관·외인들, 코스닥 매물 쏟아 개인투자자는 이달 1.3조 매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연말 '매도 폭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코스닥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수 폭락의 정점이던 지난 3월을 제외하고 매달 순매수 행진이다. 반면 기관투자자는 코스닥 시장에서 물량을 쏟아내는 중이다. 대주주 요건 지정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 분석에 '코스닥 개미'에겐 주의보가 발동했다.

◆‘동학개미’, 코스닥 사랑은 여전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이달 들어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에서 1조710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45조3536억원 규모를 사들였던 개인의 투자포지션은 이제 전환됐다. 월간 단위 개인 순매도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렸던 개인투자

〈개인투자자 코스닥 순매수 규모〉 (억원)

월	순매수 금액
1	13165
2	9438
3	-3328
4	10409
5	3344
6	9215
7	8626
8	17384
9	22909
10	14365

*월 1~21일별

자의 주식 매수세가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다.

코스닥 시장은 다르다. 개인은 이달 코스닥 시장에서 1조436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이 1조943억원, 외국인이 945억원의 매물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지수를 지탱하고 있다. 21일까지 기준으로 지난 9월(2조2909억원)과 1조7384억원(8월) 다음으로 올해 최대 규모 순매수다.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던 4월(1~21일) 1조409억원보다도 많이 샀다. 코스

〈기관투자자 순매수 상위 10종목〉 (억원)

순위	종목	순매수 금액
1	삼성전자	2065
2	롯데케미칼	1872
3	포스코	1624
4	SK하이닉스	1561
5	SK텔레콤	1114
6	현대모비스	865
7	KB금융	815
8	하나금융지주	754
9	현대백화점	594
10	SK케미칼	566

*이달 1일~20일 기준

닥시장에선 여전한 구원투수인 션이다.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3거래일)로 휴장했음에도 나온 결과다.

◆대주주요건 강화로 매물 폭탄 '주의보'

문제는 연말 주가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개인의 거센 반발 속에도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요건을 주식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일 다시 한 번 기존 입장을 반복한 가운데 세제 합산 범위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시장에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요건이 대폭 강화된 만큼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인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투자 추정치에 따르면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되는 과세 대상 보유 주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합쳐 41조 6000억원에 달한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수급 이슈는 코스피보다 개인 매매 비중이 더 높은 코스닥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으로 인한 변동성이 있더라도 연말까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주식 보유액이 많은 개인은 과거에도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매물을 쏟아낸 바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12월에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순매도했다. 이 기간 개인의 12월 평균 순매도액은 코스피 2조338억원, 코스닥 4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순매수 비중이 높

거나 수익률이 높은 업종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코스닥 1조4000억원 기관, 가치주는 담았다

소외당했던 경기민감주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도 '코스닥 주의보'를 뒷받침한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방어주보다는 경기민감주의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은 지배적이다. 코스닥시장은 헬스케어 섹터의 비중이 약 28.5%를 차지한다. 김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가치주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서 성장주와의 실적 격차가 축소됐다"고 했다.

이는 기관 동향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기관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1조1000억원 가까이 팔아치웠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고작 124억원 파는 데 그쳤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코스닥 매도 규모가 크다. 이 기간 기관의 순매수 상위 10종목은 모두 경기민감주 혹은 가치주로 분류되는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포스코,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현대백화점, SK케미칼, 한국전력이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박정림 KB증권 대표 '디지털혁신 CEO' 선정

한국IDC DX어워드 2년 연속 수상 디지털 생태계 확장 등 공로 인정



번에 신설되어 디지털 혁신 기업을 만들기 위해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어간 CEO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정림 대표는

▲ '디지털 경제에서의 고객 중심과 혁신 주도'라는 비전 수립 ▲ 플랫폼 기반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 ▲ 핀테크·빅테크와의 제휴를 통한 디지털 생태계 확장 ▲ 유연한 기업문화 조성 및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KB증권 측은 밝혔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KB증권은 지난 20일 한국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가 개최한 제4회 IDC DX 어워드(IDC Digital Transformation Awards)에서 박정림 대표이사(사진)가 한국 'DX 최고경영자(CEO)' 부문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2019년 IDC DX 어워드에서 한국지역 최고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DX CEO상을 통해 2년 연속 수상을 달성했다. IDC DX 어워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리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DX CEO' 부문은 이

민간임대아파트 연말까지 8213가구 모집

아파트 청약 제도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민간임대아파트로 쏠리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연말까지 전국에서 821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청약 제도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이와 같은 기준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을 지난 이들에게 맞추기 힘든 조건이다. 지난 7~8월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 당첨자의 평균 최저 청약가점을 보면 60.6점이었으나,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30대에 4인 가족을 꾸려 청약가점 만점을 받아도 57점을 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과 상관없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연말까지 충남 아산을 비롯 인천 부평, 부산 강서구, 전북 익산 등지에서 8213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장기임대주택인 민간임대아파트는 최대 8년 간 임대가격 상승 걱정 없이 거주하며 8년 뒤 내 집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청약 조건이 자유로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없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 중에도 일반 분양 아파트 청약할 수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

가치주 강세 국면... 저금리 환경 고려해야

8월 말 대비 가치주 6.5%↑ 유동성장세→실적장세 전환 금리 상승이 가치주에 유리

코스피 지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면받던 가치주와 경기민감주가 경제활동 정상화로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제공하는 WMI500 섹터지수를 살펴보면 8월 말 대비 가치지수는 6.5% 상승했지만, 성장지수는 2.4% 하락했다. 올해 초부터 약세 흐름이 이어졌던 가치지수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 가치주 실적 회복에 따른 기대감

코로나19 이슈 이후 국내 증시는 치료제와 관련된 바이오주, 언택트주, 전기차 배터리주 등의 성장주가 이끌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3분기 실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이동하는 전환기로도 평가된다.

이제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유동성 확장을 기반으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후 평균 수준에 수렴해 가고 있다"며 "유동성 장세 이후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인 실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경제 전망 개선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4%다. 지난 6월 -5.2% 대비 상향 조정된 수치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수출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 가치주 전환 위해선 금리 상승 필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도 가치주의 강세를 이끌어냈다. 풍부한 유동성과 경제활동 정상화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자 원자재 가격도 자연

스레 상승했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치성향이 높은 섹터로 에너지와 소재 섹터를 들 수 있는데 두 섹터는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실적 전망치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장기간 부진했던 주가 성과로 성장지수 대비 높아진 가격 매력도와 가치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치지수의 강세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 주도주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본격 전환되기 위해선 금리가 상승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장세는 성장주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현재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에 반영된 장기채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과 물가를 반영한 실질금리는 모두 마이너스(-) 영역"이라며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실질금리의 하락은 성장주에 유리한 투자환경"이라고 평가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미래에셋자산운용 美 부동산 공모펀드 출시

아마존 물류센터 세 곳 투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중부와 남부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 세 곳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자산미국부동산공모펀드 16호'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펀드 모집규모는 965억원 한도로 10월 28일까지 KB국민은행과 미래에셋

대우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설정일로부터 5년 6개월이며 중도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구조다.

투자자에게 환금성과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설정 이후 90일 이내 상장한다.

투자대상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임대면적 전체를 사용하

는 미국 인디애나,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물류센터 세 곳이다.

부지 선택부터 설계까지 아마존이 관여했으며 글로벌 물류시설 개발업체인 스케넬이 개발, 모두 올해 준공됐다.

물류업체가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배송 마지막 구간인 라스트 마일(Last-mile) 물류시설로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아마존 물류 시스템의 핵심으로 꼽힌다.

/송태화 기자

반도체 사이클, 글로벌 호황기... 전세계 곳곳서 깜짝 실적

코로나로 서버·IT부분 확대 영향 SK하이닉스-인텔 '빅딜' 긍정적 D램 가격 ↓... 실적하락 전망도

반도체 업계가 3분기 호실적 파티를 이어가고 있다. 긍정적인 4분기 전망으로 공포감도 다소 사그러들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시작된 것은 큰 악재로 꼽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는 20일(현지시간) 3분기 매출 38억2000만달러에 순이익 1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 기준으로 전년(37억7000만달러) 대비 소폭 개선됐으며, 시장 전망치도 10% 이상 돌파했다. 4분기에도 매출액 35억달러 안팎을 예상하며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TSMC도 3분기 최대 실적을 발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3분기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표한 바 있다. 인텔과 AMD 등도 조만간 진행할 실적 발표를 통해 기대 이상 실적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도 서프라이즈가 이어졌다. 마이크론과 난야가 예

상을 넘어선 매출로 기대감을 높인 것. 삼성전자도 잠정실적을 통해 반도체 실적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SK하이닉스도 3분기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투자도 지속 중이다. 램리서치와 어

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 도쿄 일렉트론(TEL)뿐 아니라 국내 관련 업계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주가도 덩달아 상승세다.

코로나19가 서버와 IT 부문 시장을 크게 확대한 영향이다. 전세계가 서버 확충에 나섰으며, PC와 스마트폰 등 IT기기 시장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도 함께 성장하는데 성공, 삼성디스플레이도 다시 LCD 패널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4분기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3분기 실적 개선이 미국 무역재제로 급하게 재고를 확보하려는 화웨이 때문으로 추정됐지만, 실제 시장도 호황을 이루면서 반도체 수요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와 인텔의 '빅딜'도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왔다. 인텔이 10조원

을 확보하면서 다소 주춤했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투자할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다. 인텔은 CPU를 중심으로 서버와 PC 시장 표준을 이끌어왔던 만큼, 반도체 시장 전체적으로도 기대감이 높아진 모습이다.

단, 공포감이 완전히 사그러들지는 않았다. 당장 D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21일 DDR4 8G 평균 가격은 2.9달러로 소폭 하락했다. 여전히 기존 전망과 같이 10% 수준 하락 가능성도 높다.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대되는 것도 악재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또다시 일부 지역을 폐쇄했다. 일부 상점에도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시장도 혼돈에 빠졌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국내 OCIO 시장 100조... 운용재량은 제한적

(외부위탁운용관리)

운용자산 80%, 대형 공적기금 집중 저금리 장기화로 기관 위탁 수요 ↑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시 더 활성화

국내 외부위탁운용관리(OCIO·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기존 연기금 위주 시장에서 일반법인, 대학기금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운용의 재량이 해외 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CIO 제도란 고액자산가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자산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난달 2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국내 OCIO 시장 확대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국내 OCIO 시장은 100조원에 달한다.

아직까지는 전체 운용자산의 80% 이상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공적연기금, 민간연기금 등 대형 공적기금에 집중돼있는 모양새

올해 진행된 OCIO 사업	
강원랜드	150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조400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8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관 선정중)	1조3000억원
이화여대(기관 선정중)	1500억원

다.

하지만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자금을 위탁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축소된 펀드 시장도 OCIO 수요 급증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OCIO 사업으로는 1500억원 규모의 강원랜드, 1조4000억원 규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28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

공)과 이화여대는 각각 1조3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OCIO 기관 선정 작업 중이다. 이 중 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사업 성과보상기금 운용을 위한 기관을 선정하는데 총 11곳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몰렸다. 자산운용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OCIO 사업에 기존 증권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 이미 20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국내 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 지배구조가 도입되면 국내 OCIO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 전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처럼 외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되면 필요할 경우 일부 자금을 운용기관에 위탁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국내 OCIO 시장은 위임되는 업무의 범위와 운용의 재량이 해외 시장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 출범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7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대면 중기 육성 민간협의회' 출범

중기중앙회 등 단체·기관 16곳 참여 네트워크 강화·제도 개선 모색 등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범중소기업계가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뭉쳤다.

비대면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 차원에서 네트워크 강화, 제도 개선 모색, 공동 협력 강화 등을 위해서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이참에 중소기업계가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간협의회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연구원 등 16개 단체·기관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맡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연택트 시대를 맞아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선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대응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영기반 마련과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은 물론,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경제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세대(5G)통신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농업 분야의 스마트팜, 제조 분야의 3D프린팅, 도소매·물류·유통분야의 드론·자율주행, 숙박·음식점의 무인매장, 무인텔, 로봇서빙 그리고 정보통신·교육서비스분야의 OTT(Over The Top) 서비스, 인터넷 교육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병현 원장은 "비대면 사업은 기존의 산업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식별이 가능하지만 비대면 산업은 실체가 없는 만큼 제정될 관련법의 정책 대상은 '비대면 기업'과 '비대면 사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는 이날 결성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전환 촉진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비대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승훈 기자 bada@

기업, 수익·안정 악화... "이자도 감당 못해"

한은 '2019년 기업경영분석' 작년 제조업 매출액 감소세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매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차입금 의존도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의 비중은 더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74만1408개의 매출액증가율은 0.4%로 전년 4.0%에서 낮아졌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영상·통신장비,

화학제품, 석유정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1.7%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기가스 등 비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3%로 전년 4.0%에서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2.3%로 하락폭이 컸고, 중소기업은 4.2%로 집계됐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모두 악화됐다.

작년 기업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2%,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3.7%다. 전년 각각 5.6%, 5.3%에서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매출액영업이익률 7.3%→4.4%, 매출액세전순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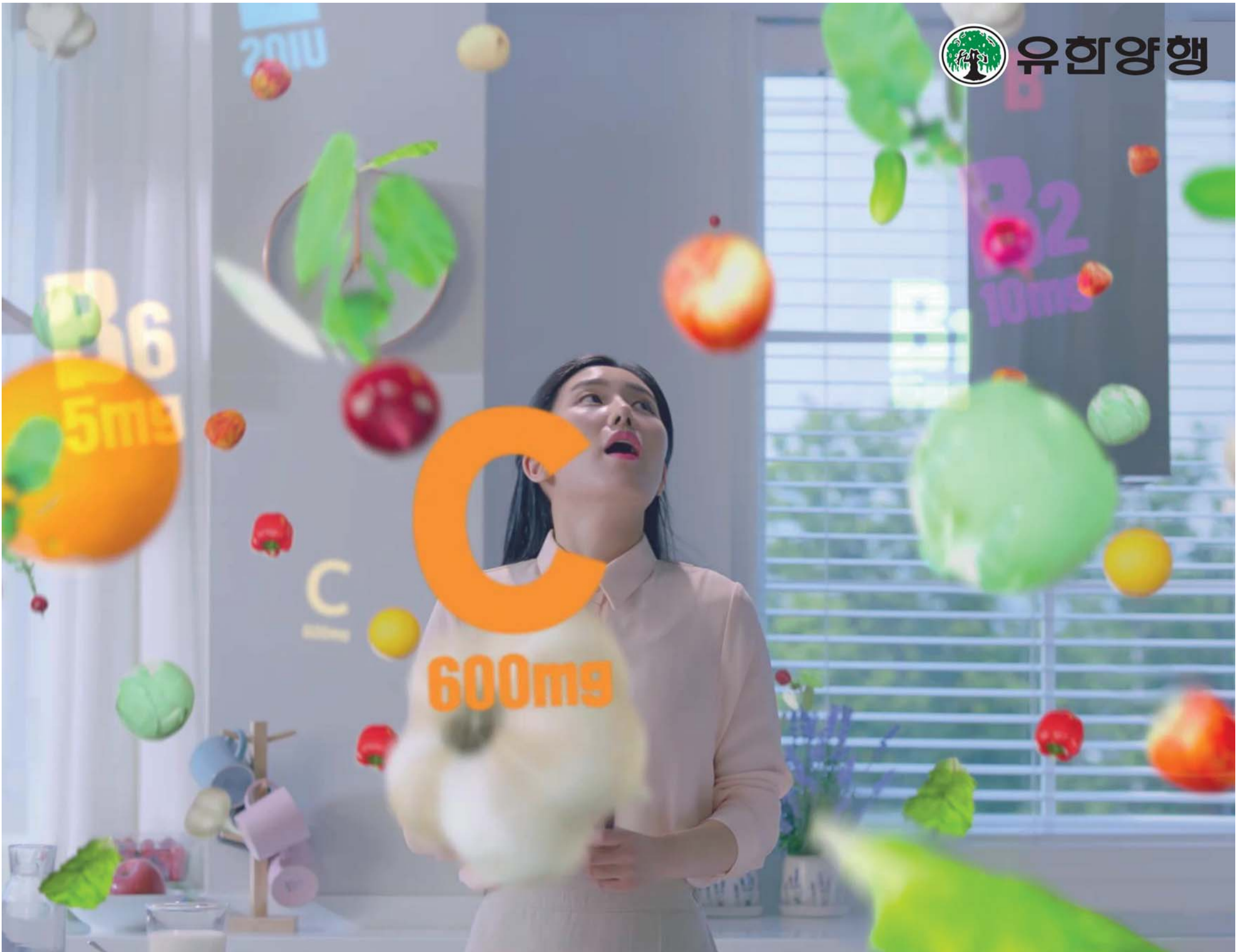
7.3%→4.2%)은 전자·영상·통신장비를 중심으로 하락했고, 비제조업(4.3%→4.0%, 3.6%→3.3%)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7.2%→4.8%, 6.8%→4.2%), 중소기업(3.5%→3.4%, 3.1%→3.1%)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다.

이자보상비율은 326.5%로 전년 470.9%보다 악화됐다. 영업이익률은 하락한 반면 금융비용부담률은 상승한 탓이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가족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해
베콤·씨로 채우세요!

한 끼의 완성
베콤·씨®

비타민 B1 / B2 / B6

비타민 C

토코페롤

셀레늄

광고심의필 : 2020-1532-0014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 하십시오.

씨마른 전세에 '내집 마련' 수요 증가 대단지 아파트 청약시장 '최고·최다'

최근 전세값 상승으로 수요자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여파로 전세매물이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다. 아파트 전세값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해 자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을 살펴 보면 7월 4만9520건에서 8월 3만5265건으로 28.78% 감소했고 9월도 전달 대비 31.71% 줄어든 2만4081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동기(2019년 7~9월) 총 12만 3338건 거래된 것과 비교해도 11.73% 감소한 수치다. 지난 7월 이후 전국 전세가

격은 2개월 만에 5% 상승, 7월 직전 2개월 상승률(1.3%)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 수요는 여전한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대단지 청약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시장에서 최고, 최다 기록을 갱신하는가 하면 시세 상승폭도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올해 분양을 앞둔 대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서울 삼성역까지 16분... 최적의 생활권 '눈길'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94의 11 일원에 의정부 중앙생활권 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926 가구 중 49~84㎡ 20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1단지 330가구 중 전용면적 49~59㎡ 57가구, 2단지는 596가구 중 59~84㎡ 150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전용면적별로는 ▲49㎡ 57가구 ▲59㎡ 118가구 ▲72㎡ 37가구 ▲84㎡ 47가구 등이다.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반경 1km 내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1호선-의정부경전철 회룡역, 의정부경전철 발곡역 등이 위치한다. 이를 통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35분이면 이동 가능하고 서울 중심업무지구인 시청역까지도 약 4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GTXC노선은 양주(덕정)~의정부~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난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역(예정)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4정거장, 약 16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도심 내 보기 드문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중랑천과 백석천의 교차 지점에 위치해 하천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남측으로 북한산 둘레길을 비롯해



백석천근린공원, 장암발곡근린공원, 신곡배수지하늘공원 등 다수의 근린공원도 인접해 있다.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각 세대 내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10인치 터치스크린 월패드를 통해 조명·난방·가스 제어, 세대현관 방문객 확인 및 문열림, 세대 간 화상통화, 엘리베이터 호출, 원격검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실시간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도어 카메라, 스마트 일괄제어스위치 등도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2단지), GX 클럽(2단지) 등 입주민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공간과 더불어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등 편의공간과 그리너리카페, 푸른도서관, 독서실 등 문화공간이 마련된다.

(031)829-8297

서쪽엔 순천동천... 탁트인 조망 프리미엄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대림산업

대림산업은 이달 전남 순천시 조곡동 634 일원에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84~112㎡ 632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84A㎡ 233가구 ▲84B㎡ 35가구 ▲84C㎡ 123가구 ▲112A㎡ 168가구 ▲112B㎡ 67가구 ▲110PA㎡ 2가구 ▲110PB㎡ 3가구 ▲110PC㎡ 1가구다. ▲110PA㎡, ▲110PB㎡, ▲110PC㎡는 펜트하우스로 선보인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순천을 동서로 잇는 봉화로가 가깝다. 봉화로와 연계된 17번, 22번 국도 이용시 광양, 여수 등 인근 도시로 편리하게 갈 수 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순천종합터미널, KTX순천역도 차량으로 10분대 거리다.

사업지 서쪽엔 순천동천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봉화산이 자리한다. 특히, 탁트인 순천동천 조망(일부 세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며, 순천동천을 따라 산책로와 수변공원도 잘 조성돼 있다. 또한 봉화산 조망(일부 세대)도 가능하다. 봉화산의 명소인 약 4.2km의 둘레길을 내 집 앞 정원처럼 이용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대림산업은 순천 최초로 대림산업 혁신 주거 플랫폼 'C2하우스'를 선보인다. C2하우스는 내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구조변경이 자유롭고, 수납을 극대화한 라이프스타일 맞춤 특화 설계 평면이다. 탕을 갖춘 남녀 사우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손님이 편하게 묵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된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가 들어서는 전남 순천은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 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도 덜하며 계약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061)744-9700

도보권 내 공원·체육시설... 환승없이 강남 이동

화성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이달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621의 87 일원에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 59~156㎡ 1378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36가구 ▲75㎡ 570가구 ▲84㎡ 689가구 ▲103㎡ 2가구 ▲105㎡ 64가구 ▲112㎡ 2가구 ▲119㎡ 3가구 ▲121㎡ 3가구 ▲130㎡ 7가구 ▲156㎡ 2가구 등이다.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지난해 초 입주를 마친 영통 아이파크 캐슬 1·2단지(2945가구)와 더불어 앞선 7월 분양을 시작해 단숨에 분양을 마무리 지은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664가구), 이달 분양을 앞둔 당 사업지(1378가구), 그리고 연내 공급될 4단지(986가구)까지 5973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이뤄진다.

주거환경으로 도보권 내 잔디광장, 어린이숲놀이터, 망포글빛도서관 등이 조성된 4만5000여㎡ 규모의 글빛누리공원이 위치하고 지성공원, 잠원공원 등도 인접해 있다. 또한 원천리천을 통해 신동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도 이용할 수 있다. 박지성축구센터, 망포체육문화센터(2021년 완공 예정) 등 체육시설도 가깝다.



단지에서 2km 내 분당선 망포역, 매탄권선역을 통해 강남권까지 환승없이 이동 가능하고 KTX 경부선·1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수원역까지도 1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망포역에서 1정거장 거리의 영통역을 통해서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6년 개통 예정)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덕영대로, 1번 국도,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진입도 용이하다.

단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자는 1순위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된다.

(1688-1551)

초역세권에 버스 노선 33개 '입지 깡패'

부산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1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일대에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5층~지상34층 2개동 70~84㎡ 총 217가구로 이뤄져 있다. 지상 1~2층에는 3572㎡규모의 단지 내 상업시설이 조성되며, 지상 3층~34층까지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0㎡A 62가구 ▲70㎡B 31가구 ▲84㎡A 31가구 ▲84㎡B 31가구 ▲84㎡C 31가구 ▲84㎡D 31가구 등이다. 이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 4번 출구가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인 데다 걸어서 약 5분 이내에 5개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3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 황령대로, 황령터널, 수영로 등을 통해 남해고속도로와 광안대교 등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단지에서 남천초가 약 400m 거리에 있는 것을 비롯해 남천중, 부산동여고, 수영구 도서관 등도 반경 800m내에 인접해 있다. 특히 단지 내 상업시설의 경우 일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비해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하며, 1층 스트리트형 설계와 2층 테라스 설계(일부호실) 적용으로



뛰어난 가시성은 물론 유동인구 유입도 수월하다.

또한 단지 북서측으로 황령산, 황령산 나들숲길, 금련산 등의 녹지시설이 있는 것을 비롯해 북동측으로는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남천동 뱃꽃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현재 단지 주변으로 8개 정비사업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부산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수영구에 최초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초역세권에 교통, 교육, 편의, 쾌적성 등 완벽한 생활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며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599-7652)



직주근접 입지 우수... 트리플 역세권 복합단지

조경면적 37% 친환경단지...인근엔 원천리천

남양주 별내자이 더 스타 GS건설

GS건설은 오는 11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 내 복합1블록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84·99㎡ 740가구이며, 오피스텔은 47·49㎡ 192실이다.

'별내자이 더 스타'는 GS건설이 옛 메가볼시티 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복합단지 약 3만9000㎡(1만1800평) 규모 부지에 총 5개 블록으로 구성돼 있다. GS건설은 5개 블록(복합1블록 및 상업2~5블록)에 ▲주상복합단지(아파트·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영화관 및 컨벤션 등 문화시설 ▲주차전용건물 등을 조성한다.

GS건설은 10월에 주상복합단지를 먼저 선보이고, 순차적으로 생활숙박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분양 예정이다.

대규모 복합단지인 별내자이 더 스타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탈바꿈 될 '별내역'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 예정)이 완공되면 획기적인 교통망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별내선은 총 연장 12.9km로 서울 강동구 8호선 암사역을 출발해 중앙선 구리역과 농수



산물도매시장, 다산지구를 경유해 별내역(경춘선)까지 연결되며 별내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잠실역까지 10정거장이면 도착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B노선 계획에도 별내역이 포함돼 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을 잇는 민간투자 철도사업으로 주요 정거장은 송도국제도시, 서울신도림, 여의도, 용산역, 서울역, 별내역 등이다. GTX-B노선 예비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별내역에서 서울역까지 3정거장, 약 11분대 이동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별내자이 더 스타가 위치한 별내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복합1블록의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전 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1544-5088)

수원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이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원에서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79~107㎡ 1251가구를 분양한다.

블록별로 살펴보면 770의 46 일원에서 조성되는 1블록은 84~107㎡ 642가구, 775의 24 일원에 조성되는 2블록은 79~107㎡ 609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9㎡ 31가구 ▲84㎡ A 549가구 ▲84㎡B 116가구 ▲84㎡C 251가구 ▲84㎡D 178가구 ▲107㎡A 77가구 ▲107㎡B 49가구다.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는 단지 인근에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과 망포역이 위치해 있다. 이 노선을 통해 판교역까지 40분대, 강남역까지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다. 지하철 1호선, 수인선, KTX경부선 환승역인 수원역까지도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도보 이용 가능한 글빛누리공원, 늘푸른공원, 지성공원 등의 녹지가 있다.

단지 서측에 수원의 4대 하천 중 하나인 원천리천이 있어 신동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1811-6868)



주변으로 다양한 업무지구가 위치해 직주근접 입지도 갖췄다. 직선거리 약 1.5km 위치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있으며 삼성전자나노시티 기흥캠퍼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등도 가깝다.

실내는 대면형 주방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 현관 창고장, 자녀방 불박이장 등이 제공된다. 또한 84㎡D와 107㎡에는 별도의 테라스가 제공돼 다양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며, 일부 세대의 경우 분리형 특화 평면을 적용해 부분 임대 가능하다. 단지는 조경면적 비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단지로 조성된다. 블록별 단지 중앙에는 조경과 어우러지는 중앙광장이 조성된다. (1811-6868)

도심 속 브랜드 대단지... 탄탄한 생활 인프라

출퇴근 용이한 핵심 입지... 알짜단지 '주목'

구로 고척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11월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의 7 일원에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을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고척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고척 아이파크'는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내 64·79㎡ 2205가구로 이뤄지는 도심 속 브랜드 대단지다. 지상 최고 45층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과 지상 최고 35층 5개동 규모의 아파트로 구성된다.

특히 '고척 아이파크'는 2205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서관, 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등이 입주하는 행정타운(계획)은 물론 공원, 소규모(예정) 등이 함께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다. 단지는 1호선 개봉역과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고척 아이파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주거부담은 낮추고 생활의 품격은 올리는 각종 특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먼저 8년간 이사 걱정없이 임대 보장되는 아파트로 입주 2년 후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며, 청약신청시 청약통장 미사용,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02)862-2205



특히 일반 청약자는 인근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청약자(청년·신혼부부·고령자)는 85% 이하의 합리적인 초기 임대료가 책정되며,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최대 750만원)까지 주어진다. '고척 아이파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만큼 HDC현대산업개발만의 특화된 주거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는 회의실, 세미나실을 운영해 재택 근무자를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며, 피트니스 센터 내 입주자 GX프로그램 및 개인 PT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입주자를 위한 자전거 및 차량 전용공구 등의 셰어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02)862-2205

충남 당진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 호반산업

호반그룹 건설계열 호반산업은 이달 충남 당진시 수청동 수청2지구 RH-2블록에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 998가구를 분양한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577가구 ▲84㎡B 421가구다. 이번 분양으로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는 앞서 공급된 '호반써밋 시그니처 1차' 1084가구와 함께 2082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가 들어서는 당진 수청2지구는 당진시청을 비롯해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시법원, 당진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접근이 수월하며, 도보거리에 수청2지구 중심상업용지가 위치해 있다. 동부로와 남부로, 32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당진 시내뿐만 아니라 천안과 아산, 평택 등으로도 빠르게 진출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 공원 용지가 계획돼 있고, 수청근린공원, 구름어린이공원, 대덕공원, 계림공원 등을 이용해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또 현대제철,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 일반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서산오토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서산인더스밸리 등 인근의 다수 산업단지 출퇴근 여건이 우수하다. (1566-1343)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이 우수하며, 4베이(BAY) 판상형으로 구성한다. (84B㎡ 5BAY) 세대 내에는 대형 드레스룸(일부 가구)과 다목적실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했고, 바닥과 상판 등에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적용한다.

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실내골프장, 피트니스센터, 남녀독서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한다. 독서실 등에는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는 산소 발생기가 설치되고, 커뮤니티 시설에 최첨단 무인 경비 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돼 있다.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의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444의 9)에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3년 3월이다. (1566-1343)

계열 같아도 대학원 등록금 대학별 '6배차'

천차만별 대학원 등록금 '눈길' 카이스트 인문계열 연 1082만원 자연과학·공학서도 가장 높아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해외 유학길도 막히며 국내 대학원이 때 아닌 인기를 끌면서 대학원 등록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대학원 중 가장 등록금이 비싼 일반대학원은 연 1082만원을 기록한 한국과학기술대(카이스트·KAIST) 인문사회계열로, 카이스트는 인문사회·자연과학·예체능·공학·의학 등 5개 중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 3개 계열에서 타 대학 동 계열 대학원 중 가장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의 대학정보 공시시스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에서 같은 계열이라도 대학마다 연 등록금은 올해 최대 6배까지 차이났다. 174개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중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카이스트로, 올해 등록금은 1082만원이다. 동계열 가장 저렴한 등록금을 기록한 한국전통문화대(159만원)보다 6배 넘게 높았다.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2위인 가톨릭대(543만원) 보다도 2배 가량 높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타 대학에서는 특수대학원에 속해 있는 경영대학원(MBA) 과정이 카이스트에서는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로 속해 일반대학원 평균 등록금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계열별 대학원 등록금 상위 5순위>

순위	학교	인문사회	학교	자연과학	학교	예체능	학교	공학	학교	의학
1	KAIST	10,820,656	KAIST	9,559,000	연세대	6,901,367	KAIST	9,546,675	고려대	8,646,000
2	가톨릭대 제2캠퍼스	5,427,000	가톨릭대 제2캠퍼스	7,181,094	중앙대 제2캠퍼스	6,845,000	성균관대	6,973,027	중앙대	8,118,000
3	이화여자대	5,220,461	성균관대	6,816,137	이화여자대	6,727,192	중앙대	6,938,000	성균관대	8,033,000
4	성균관대	5,217,987	중앙대	6,464,565	중앙대	6,678,502	고려대(세종)	6,897,000	연세대	7,793,000
5	광운대	5,125,540	단국대 제2캠퍼스	6,425,868	한양대(ERICA)	6,668,919	고려대	6,881,730	연세대(미래)	7,793,000

단위: 원

며 '카이스트는 대학원생 정부지원금이 월등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등록금은 훨씬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2위 대학은 가톨릭대(제2캠퍼스)로 543만원을 1년 등록금으로 받고 있다. 이어 ▲이화여자대(522만원)▲성균관대(522만원)▲광운대(513만원)▲숭실대(512만원)▲차의과대(511만원)▲중앙대(510만원)▲단국대(502만원)▲한양대(502만원) 등이 상위권 10개 대학에 들었다.

카이스트는 자연과학계열에서도 가장 비싼 등록금인 956만원을 받고 있다. 국내 대학 일반대학원 중 자연과학 계열이 개설된 대학은 134곳이다. 이어 ▲가톨릭대(제2캠퍼스)(718만원)▲성균관대(682만원)▲중앙대(646만원)▲단국대(제2캠퍼스)(643만원)▲고려대(세종)(631만원)▲아주대(628만원)▲가톨릭대(620만원)▲중앙대(제2캠퍼스)(611만원)▲차의과대(610만원) 순이다.

의학·공학계열과 함께 등록금이 비싼 것으로 알려진 예체능계열 일반대

학원 평균 등록금은 연 470만원으로, 올해 가장 높은 등록금을 기록한 대학은 연세대(690만원)다. 연세대는 올해 서울권 주요 대학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록금인 893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전국단위에서도 평균 등록금 1위인 한국산업기술대(899만6000원)에 이은 등록금 상위 2위 성적이다.

중앙대 제2캠퍼스는 예체능계열 등록금 1위인 연세대와 근소한 차이로 2번째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었다. 일반대학원 예체능계열 등록금은 ▲중앙대(제2캠퍼스)(685만원)▲이화여자대(673만원)▲중앙대(668만원)▲한양대(ERICA)(667만원)▲홍익대(제2캠퍼스)(664만원)▲경희대(660만원)▲단국대(659만원)▲국민대(658만원)▲홍익대(651만원) 순으로 10개 대학 모두 650만원~690만원 사이에 연 등록금이 형성돼 있다.

국내 132곳의 공학계열 일반대학원에서도 가장 높은 등록금을 거둔 곳은 카이스트로 연 등록금은 954만원이다. 공학계열에서 가장 등록금이 저렴

한 한국전통문화대(189만원)와 5배 차 이었다. 이어 ▲성균관대(697만원)▲중앙대(694만원)▲고려대(세종)(690만원)▲고려대(688만원)▲한양대(688만원)▲한양대(ERICA)(688만원)▲연세대(688만원)▲이화여자대(680만원)▲연세대(미래)(672만원)가 공학계열 등록금 상위 10위에 들었다.

의과계열은 국내 대학 일반대학원 49곳에 개설돼 있으며, 평균 등록금은 631만원이다. 고려대는 의과계열 등록금 상위 1위로 865만원을 받고 있으며, ▲중앙대(812만원)▲성균관대(803만원)▲연세대(779만원)▲연세대(미래)(779만원)▲한양대(778만원)▲경희대(777만원)▲단국대(제2캠퍼스)(772만원)▲이화여자대(770만원)▲인하대(759만원) 순이다.

올해 국내 대학 일반대학원의 계열별 1년 등록금은 각각 ▲인문사회 380만원 ▲자연과학 449만원 ▲예체능 470만원 ▲공학 474만원 ▲의학 631만원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호서대 11대 총장에 김대현 박사 선임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21일 이사회에서 호서대 제11대 총장으로 김대현 박사(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호서학원 이사회는 이날 호서대 교수로 재직 중인 전 예체능대학장 김대현 박사의 총장 선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선임 배경에 대해 "대학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3주기 대학기본역량 평가 준비 및 학사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대현 총장은 경희대 영어영문학과와 한양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1995년 독일 Ruhr-Univ. Bochum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미래교육원 내년도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

세종대 미래교육원이 2021학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21일 세종대에 따르면 2021년도 모집은 ▲호텔경영(식음료+경영과정) ▲외식경영(제과제빵+경영과정) ▲식품조리(호텔외식조리학과과정)이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등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입학 지원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산업부 "월성1호기 폐쇄 감사결과 유감"

"부정적 조작, 관여 없었다" 반발 에너지전환 정책 지속 추진 강조



월성1호기 전경. /연합뉴스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했다"면서 "경제성 외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

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감사 결과에 대

해서는 반발했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산업부가 해당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절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에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는 2009년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학교법인 건국대 산하 건국AMC가 '광진형 착한임대인 상생협약식'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건국대

'착한임대 캠페인' 건국AMC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표창장

학교법인 건국대는 산하 수익사업체 건국AMC가 지난 20일 서울시 광진구청에서 열린 '광진형 착한임대인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임대료 인하 등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노원구민에 문화예술공연

삼육대가 오는 22일부터 노원구 불암산 나비정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예술에(愛) 산책로(路) 한바퀴'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가 주최하고, 노원문화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삼육대가 지난해 노원문화재단과 맺은 산학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3분기 수출입 물동량 14.6% 감소

총 3억879만톤... 코로나 여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둔화로 올해 3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이 1년 전보다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3분기 수출입 물동량이 총 3억879만톤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3억6176만톤)보다 14.6%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연안 물동량은 건설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모래 물동량이 급증한 데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5046만톤)보다 0.5% 늘어난 5073만톤을 나타냈다. 이를 포함한 3분기 전체 물동량은 모두 3억5952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억1222만톤)보다 12.8%

감소했다. 다만 지난달만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감소한 1억2221만톤을 기록해 7~8월보다는 감소 폭이 둔화했다.

3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719만TEU)보다 2.0% 감소한 705만TEU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됐지만 2분기(4.4%)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작았다. 이 기간 수출입은 2.3% 감소한 404만TEU, 환적은 1.6% 줄어든 297만TEU로 집계됐다.

화물이 실린 적(積) 컨테이너와 비어 있는 공(空)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각각 0.9%, 6.7% 줄었다. 컨테이너 화물 중량 기준으로는 17.3% 감소한 1만2243만톤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은 4.6% 감소한 518만TEU, 광양항은 4.9% 감소한 53만4000TEU였다. 인천항은 연초에 개설한 중국, 베트남 항로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늘어난 85만2000TEU를 기록했다.

/한용수 기자

**IT'S PERFECT.
NOW MAKE IT BETTER.**



 **Columbia**

ALMANAC 070-7840-1715
www.almanac.kr





NH농협금융, 임직원 봉사단 화훼농가 일손 도와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일 김광수 회장 등 임직원 봉사단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김포 소재 화훼 농가를 방문해 수확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NH농협금융 임직원 봉사단은 화훼 상토 작업과 화분갈이, 환경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농업인들의 고충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오른쪽 세번째)과 김인태 부사장(첫번째) 등 임직원 봉사단들이 화분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한세실업, 베트남 초등학교 400곳에 4만권 책 기증
한세실업이 베트남 초등학교 400여 곳에 기증한 책이 4만권을 기록했다. 한세실업은 베트남 법인을 통해 '1만권의 책-수백만의 사랑' 도서 기부 행사를 성황리에 끝냈다고 21일 밝혔다. 베트남 호치민시 판반찌 초등학교에서 지난 13일(현지 시간) 열린 도서 기증 행사에서 문양원 한세실업 아시아 총괄 법인장(왼쪽)이 응웬 티 흥 엔 학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세실업



금호타이어, 슈퍼레이스 GT클래스 네이밍 스폰서십 체결
금호타이어가 20일(슈퍼레이스와 2020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클래스의 네이밍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이에 2020 시즌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 클래스는 '금호 GT' 클래스로 변경되어 레이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상업 금호타이어 부사장(왼쪽 세번째)과 김동민 슈퍼레이스 대표(왼쪽 두번째)가 후원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유신재 박사, 국제해양연구회 의장 선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는 '2020년 국제해양연구위원회(SCOR) 연차총회'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유신재 박사(사진)가 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임 의장 임기는 2020년 10월~2024년 10월까지 4년이다. 위원회는 해양학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1957년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 해양 학술기구다. '국제 인도양



탐사'와 같은 전지구적 규모의 해양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해 세계 해양학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31개 회원국이 속해 있고, 설립 이래 아시아권에서 의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홍수기자 hys@



전자랜드, 미혼모지원센터에 가전 청소 서비스
전자랜드는 오는 23일까지 서대문구세군 두리홈 미혼모 지원센터에 가전 청소 서비스 '전자랜드 클리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랜드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지원을 통해 총 59대의 센터 내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클리닝 서비스를 진행하며, 지원 규모는 약 570만원 수준이다. 전자랜드는 이번 서대문구세군 두리홈 지원을 시작으로 미혼모 센터 지원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랜드

국감에 왜? 방산결함 참다 병나는 꼴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매년 돌아오는 풍경이지만, 국정감사만 되면 군 당국이 명품이라고 자랑해오던 무기체계나,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들의 결함이 드러난다. 우리 군의 군납체계가 후진적이다 보니 참아왔던 똥이 터져나오듯 터져나오는 것이다. 올해는 육군이 견지 않는 보병을 만들겠다고 군이 도입한 소형전술차량과 차량형 장갑차의 심대한 결함이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목소리 높여 자랑하던 군사위성에는 리모콘에 해당되는 통제 장치가 빠져 있다는 어마무시한 내용도 튀어나왔다. '더 싸고 더 빠르게 더 좋게'라는 미션불가능의 경전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군납 결함'이라는 똥을 번비가 올때까지 참는 기행이 더해진다. 업체들 간 무한경쟁을 붙여 놓으면, 군 당국이 제시한 요건이 무리한 것이라도 업체 끼리 스스로 살을 깎는 충성심을 보여줄 것이라곤 걸 군당국은 잘 알고 있다. 해외 방산 또는 군납업체들이 정부의 낮은 규제에서 업체가 주도가

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가며 발전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좁은 반도국가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만들면 사줄테니 우리의 손에서 놀아라는 얇은 생각뿐이고, 업체들도 그 손을 벗어나는 도전을 하기가 무섭다.방산과 군납이 국방과 경제를 잡는 두 마리 토끼라고 하는데 이도 사실 들여다 보면 꼭 맞는 이야기도 아니다. 방산장비와 군납물자의 목적은 전쟁과 전쟁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통한 승리확보다. 그런데 여기에 취업창출 수출확대까지 더해지면 '짬짜면'이 될 수 있다. 짬짜면은 맛이라도 있지만, 군납의 짬짜면은 어느 쪽도 아닌 기형적 맛이 돼 버린다. 방산기업은 원가를 보전받고 군납을 통해 최소한 기업유지가 되지만, 국방규격 등 우리 군의 요구사항을 벗어나 국제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 힘들다. 게다가 시장도 좁아터진데 일감이 줄어든 고용인원을 함부러 감원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의 압박은 무한반복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살기위한 난투극이 벌어진다. 남의 것을 배껴오는 건 필수과목이다. 그나마 대기업 중심의 방산업체들은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왔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군납업체는 진흙탕 이종

격투기장이다. 더욱이 이번 정부들어 가격을 낮추면서도 중소기업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펴면서, 진흙탕은 늪지의 서식처로 바꿨다. 제조업체가 아닌 일명 브로커를 낀 비전문 유통업체들의 군납 침투는 극에 달하게 됐다. 중국산 응급처치킷, 중국산 하이컷 헬멧, 뜯어지는 방탄복, 상표까지 배껴낸 가짜 특수작전용 칼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납품 업체들은 제조업체가 아닌 미용업, 통신업판매업 등의 업체들인데, 조달시스템상 군수품무역업체 등록만 하면 군에 납품을 하고 먹튀를 할 수 있다. 군인들은 대려 이들을 옹호해 준다. 물론 옹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쓰린 속사정도 잘 안다. 자신의 보직 기간 동안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는 과중감, 보직관리와 진급의 문제, 이로 인한 전문성 배양 기간의 부족 등 밖으로 말하지 못할 속사정도 넘쳐난다. 해결책은 국가계약법과 조달청 중심의 국가조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군납업체의 목을 죄는 '군복 및 군장류 단속법', 비상장장비인 광학장비 업체를 누르는 '총포 및 도검 관련법' 등의 규제를 혁파해야 제대로 된 국내기업 육성과 군납의 품질개선이 가능 하다. /captinm@metroseoul.co.kr

신한은행, 올스타 팬투표 적립금 기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전달
코로나19 피해 이웃 돕기 활용

신한은행은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회관빌딩에서 신한은행 박우혁 부행장과 KBO 류대환 사무총장, 대한적십자사 백옥숙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신한은행 쏘(SOL) KBO 올스타 투표 기간 적립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회관빌딩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쏘(SOL) KBO 올스타 투표 누적 기부금 전달식에서 신한은행 박우혁 부행장(왼쪽에서 네번째)과 KBO 류대환 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 대한적십자사 백옥숙 본부장(왼쪽에서 세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KBO 리그 올스타전은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리그 최대의 축제이다. 개막 원년인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개최됐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리그 개막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7월 25일로 예정됐던 올스타전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신한은행과 KBO는 아쉬움을 달래고 무관중 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KBO리그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팬들을 위해 지난 8월부터 한달간 올스타 투표 및 언택트 올스타레이스를 진행했다. 올스타 투표 참여수에 연동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신한은행 박 부행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KBO 타이틀 스폰서로서 야구팬들께 재미를 선사함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사

◆ 국토교통부 ◇ 부이사관 승진 △ 토지정책과장 정우진 △ 시설안전과장 김태곤 △ 항공정책과장 이정희 △ 도로정책과장 이상현 ◇ 과장급 전보 △ 기업성장지원팀장 정수호 △ 도시경제과장 윤의식

부음

▲함봉근 씨 별세, 이용익·이용진(화창기공 대표이사)·이용주(재미동포)·이해라 씨 모친상,

승은호(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회장)씨 장모상 = 20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02-3410-6915. ▲김형철(한국내소날 회장)씨 별세, 김한빛(한국내소날 대표이사)씨 부친상 = 20일 오후 3시 22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23일 오전 7시, 02-3010-2000. ▲이선우씨 별세, 이영형·이신형씨 부친상, 권희진(일간투데이 기자)씨 시부상 = 21일 오전, 광명여지원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10시, 02-2060-4444. ▲홍춘자씨 별세, 이지연(한국방송광고진흥

공사 진흥사업전략팀장)씨 모친상, 한상욱(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교육팀장)씨 빙모상 =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3일,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2258-5922. ▲김형임 씨 별세, 조점근(동원시스템 사장)·영부(동원푸드 상무이사)씨 모친상 = 20일 오후 5시43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2일. ▲김길남 씨 별세, 이경수(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씨 모친상 = 21일 오전,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23일, 062-521-4444.

옷·SW는 물론 데이터·적금도 판매... 없는게 없는 편의점

세븐일레븐-남영비비안 협업
경량패딩조끼·넥워머 등 준비
GS25-훗스퍼, FC 라이선스 체결
토틀넘 로고디자인 패딩조끼 2종
CU, 국내 첫 '오피스 프로그램'
재택 보편화에 한컴오피스 출시



한컴 오피스 2020



/BGF리테일 플리스 조끼

한카드와 손잡고 업계 최초 유통과 카드 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 관련 수익 모델 발굴에 나섰다.

GS리테일의 판매 데이터와 통합 회원 수 2400만명의 신한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통과카드 데이터를 결합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해당 콘텐츠를 상품화하고, 한국데이터거래소(KDX)를 통해 소비자 제조업체, 광고 관련 기업, 공공기관 등에 판매한다.

적금 상품도 판매한다. GS리테일은 SC제일은행과 손잡고 '퍼스트가계적금' 상품을 내놨다. 기본 금리는 연 1.0%, 매월 불입 금액은 10만원 이상인 6개월 만기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GS리테일의 전용 앱 '더딤'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유통사의 앱을 통해 적금 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이 상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와 제휴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작업은 꾸준히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고객이 원하면 뭐든지 다 판다'
패딩 조끼부터 빅데이터까지 편의점이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거듭나면서 다양한 이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먼저, 편의점 업계는 지난해 기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거둔 패딩 조끼 등 방한 용품을 올해도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남영비비안과 협업해 업계 최초로 선보인 경량 패딩 조끼를 재출시한다. 또 올해 인기 소재인 플리스로 제작한 조끼도 한정 판매하며, 방한용 마스크, 넥워머, 접이식 귀마개 등 겨울 방한용품도 함께 선보인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방한상품을 찾는 소비자를 위함이다.

GS25는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

넘 훗스퍼 FC와 정식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토틀넘 브랜드 로고 디자인을 넣은 패딩 조끼 2종을 판매한다. 100% 오리털 충전재를 사용해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옷을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가 따로 있어 휴대도 편리하다고 GS25는 설명했다.

국내 골프 브랜드 볼빅과 손잡고 넥워머, 방한 장갑, 핫팩도 출시한다.

CU는 국내 최초로 오피스 프로그램을 실물 상품으로 출시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집에서 업무, 학습, 강의 등 재

택생활이 보편화되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이에 CU는 '한컴오피스 2020'을 선보였다. 시리얼 넘버라 불리는 제품 번호가 들어간 기프트카드 형태의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가정 및 학생용으로 1년 사용권이며 한글, 한워드, 한쇼, 한셀, 한PDF 등의 다양한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다양한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상품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쌓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U와 GS25가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금융보안원과 협약을 맺고, 수집된 편의점 빅데이터를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 수요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고효율의 편의점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GS리테일은 카드업계 취급고 1위 신

롯데백, 창립 41주년... 침구·아우터 행사

내일부터 '쇼핑의 모든 것' 테마
150억 규모 '홈퍼니싱 워크' 진행



롯데백화점 창립 41주년 /롯데쇼핑

롯데백화점이 창립 4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전개한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17일 동안 '쇼핑의 모든 것(All That Shopping)'을 테마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 많은 인원이 몰리는 집객성 이벤트 대신 올해 초부터 준비한 특별 상품 행사 및 혜택을 강화한 사은 행사에 집중했다.

우선, 41주년 창립 행사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준비한 기획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특히,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이슈로 떠오른 집콕 트렌드에 적합한 150억원 규모의 '홈퍼니싱 위

클, 노비스, 파라점퍼스, 듀베티카 총 4개 브랜드가 참여, 단독 상품의 물량을 전년보다 2배 가량 늘린 프리미엄 패딩 행사가 눈에 띈다.

또한, 롯데백화점 의류 PB 브랜드 '유닛'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캐시미어 블렌디드 코트를 선보인다.

온라인몰인 롯데온에서는 창립 41주년을 기념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 롯데 유통 계열사 7개가 참여하는 2조원 규모의 행사인 '롯데온세상'이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현종혁 고객경험부문장은 "창립 행사는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1년 동안 공을 들여 준비한 결과물"이라며, "지난 41년 동안 지속적인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님들께 보답하고자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해피 할러윈 대축제'

홈플러스가 31일까지 '해피 할러윈 대축제'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델들이 홈플러스에서 '해피 할러윈 대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홈플러스

과일 넣어 달콤한 양반 식혜·수정과

동원F&B, 배·쌀·꽃감 등 사용



동원F&B가 배로 만든 전통 한식 음료 '양반 식혜'와 '양반 수정과'를 21일 출시했다.

'양반 식혜', '양반 수정과(사진)'는 과일을 넣어 달콤한 맛을 내는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한 한식 음료다. 여기에 토종 배와 이천 쌀, 영동 꽃감 등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해 한식 고유의 맛을 더했다.

'양반 식혜'는 국내산 토종 배를 넣고 만든 경기도 남부 지방 전통의 배식혜이며, 엄선한 이천산 쌀밥을 곁들여 넣어 뒷맛이 깔끔하고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양반 수정과'는 계피와 생

강의 매운 맛은 줄이고 국내산 토종 배와 영동산 꽃감을 넣어 달콤하면서도 부드럽다.

'양반 식혜'와 '양반 수정과'는 동원 그룹의 무균충전 공법으로 만들어 더욱 안전하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다. 무균충전 공법은 외부 균의 침입이 불가능한 무균설비에서 살균한 음료를 페트에 담은 공법을 적용했다.

/조효정 기자

대상 청정원 보양간편식 3종 출시

대상 청정원이 흡밥 간편식 브랜드 '일상가정식'을 통해 보양간편식 신제품 3종(사진)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제품은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나주곰탕 ▲얼큰양곱탕 ▲장어탕 등 3종으로, 재료 손질과 조리 과정이 번거로워 주로 외식으로 접하던 국물요리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했다.

/조효정 기자



신세계백, 홈콕족 위한 요리강좌 차별화

'쿠킹&베이킹' 강좌 등 선보여

늘어나는 홈콕족이 백화점 문화센터 트렌드도 바꾸고 있다.

최근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직접 요리를 하는 '홈콕족'이 많아졌다. 신세계 아카데미는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해 생활요리 전문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신세계 쿠킹 & 베이킹' 강좌를 선보인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강좌는 지난 학기보다 20% 더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홈콕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진 추세다. 2030 젊은 세대들까지 홈베이킹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현재 인스타그램에서는 '베이킹'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164만개에 달한다.

이에 신세계 아카데미는 전문강사가 직접 한식, 양식, 중식 등 레시피와 노하우를 알려주는 아카데미 쿠킹·베이킹 강좌를 신설했다.

우선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강남점에서는 박경신 한국식생활개발연구원 이사장 '가을철 입맛 잡는 요리'

강좌를 알려준다. 순두부찌개, 코다리양념구이, 달래 굴 파전 등 대표 한식 레시피를 소개한다.

11월 12일 본점에서는 디벨라 이태리 요리 강사가 진행하는 '고풍격 파스타 디벨라' 강좌가 열린다. 고풍격 파스타인 푸타네스카베르미첼리, 열무오레끼에떼 파스타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수업이다.

또한 르 꼬르동블루 제과 과정 수석 졸업한 조성연 셰프가 진행하는 '식사대용 브레드 베이직' 강좌도 11월 3일 강남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부드러운 생크림 식빵부터 쫄깃하고 달콤한 호텔식빵까지 베이킹에 대한 레시피를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순 우유 쌀 롤케이크, 캐러멜 바나나보통 케이크 등 아이들과 함께 간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강좌를 선보인다.

홈메이드 쿠킹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품 매출이 늘기도 했다. 전기오븐과 인덕션 등 베이킹 관련 전자제품 매출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0.8% 올랐다.

/신원선 기자

독감백신 접종 사망자 9명... '백신 공포증' 전국 확산

사망 9명 모두 '무료접종 대상자' 질병관리청 "8건 역학조사 진행" 백신-접종 사망 연관성 확인 안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상온 노출 우려가 제기됐던 무료 독감 백신 접종 대상자다. 정부는 아직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백신을 무료접종한 뒤 사망한 사람이 현재까지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독감 백신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 청장은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돼 그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면서 "또 같은 날짜에 같은 의료

순번	지역	성별/나이	접종 일자	사망 일자	사망까지 시간	기저 질환	백신 종류
1	인천	남/17세	14일 12:10	16일 오전 발견	42 시간	○	보령플루비테트라 (A14720007, 13-18세용)
2	전북	여/77세	19일 09:20	20일 07시 발견	22 시간	○	보령플루비테트라 (A14720016, 어르신용)
3							지씨플루퀴드리벨린트 (Q60220039)
4	대전	남/82세	19일 10:00	20일 14:00	28 시간	×	코박스인플루4가 (PT200801, 어르신용)
5	대구	남/78세	20일 12:00	21일 00:05	12 시간	○	플루플러스테트라 (YFTP20005, 어르신용)
6	제주	남/68세	19일 08:40	21일 01:11	17 시간	○	지씨플루퀴드리벨린트 (Q60220030, 어르신용)
7	서울	여/53세	17일 12:00	20일 15:00	75 시간	×	SK바이오사이언스플루4가 (Q022028, 비대상용)
8							SK바이오사이언스플루4가 (Q422002, 어르신용)
9	경기	남/89세	19일 14:40	21일 14:00	51 시간	○	보령플루비테트라 (A16820012, 어르신용)

10월 21일 오후 2시 기준

기관에서 동일 백신의 제조번호로 접종 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동구에 거주하는 78세 남성은 전일 낮 동네 의원에서 무료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지인들과 점심을 먹던 중 이상 반응이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0시쯤 숨졌다. 이 남성은 파킨슨병과 만성 폐쇄성폐질환, 부정맥 심방세동 등의 기저질환(지병)이 있었다.

같은 날 제주도 거주 68세 남성 역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제주도 민간 의료기관을 찾아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한 후 다음날 오후 12시경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전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 여성이 사망했고, 대전에서도 80대 남성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지난 16일에는 인천 소재 의료기관에서 독감백신을 맞은 17세 남자 고등학생이 이틀만에 숨졌다. 이 학생은 평소 알레르기 비염 외에 특이한 지병은 없었다.

이제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각기 다른

제조사사의 백신을 맞았지만, 모두 무료 접종 대상자라는 점에서 불안감을 키웠다. 특히, 일부 무료접종 백신 물량의 운송 과정에서 상온노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한국백신 제조한 백신에서는 흰색 입자가 나타나 일부 물량이 폐기된 사건이 발생한 후라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진 상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무료접종 독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의 우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엄중하게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등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조사나 분석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보다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왼쪽)이 20일 이대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양인철 솔메딕스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솔메딕스와 업무협약 체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솔메딕스와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솔메딕스는 의료진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료기기 개발 전문 기업이다.

지난 20일 이대서울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부총장 겸 의료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하은희 이화의료원 연구진흥담당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양인철 솔메딕스 대표이사, 강호철 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혁신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공동 연구 개발 ▲의료기 기술 아이디어 발굴 ▲학술 교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기술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강점을 접합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인철 솔메딕스 대표이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이화의료원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공동 연구를 통해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김정미 간호부장 복지부장관상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김정미 간호부장(사진)은 20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대한간호협회 제87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부장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철저한 감염관리 대응으로 원내 및 지역사회에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이번 장관상을 받았다.

김 부장은 "간호사들의 사명 의식과



희생으로 코로나19의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장은 경기도간호사회 부회장과 화성시간호사회 회장을 맡으며 간호사의 역량 강화 및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세경 기자

11번가, 빠른정산 도입에 배송도 빨라졌다

빠른정산 2주... 오늘발송 100만개 ↑ 1.1만 판매자에 140억 빠른정산 지급

커머스포털 11번가가 '오늘 발송' 판매자에게 제공한 '11번가 빠른 정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1번가는 '빠른 정산'을 시작한 지난 5일 이후 주문 당일 바로 발송하는 '오늘 발송' 상품 수가 100만 개 증가(기존 1300만 현재 1400만) 했다고 밝혔다. 2주 동안 1만 1000명의 판매자에게 140억 원 이상이 '빠른 정산'으로 지급됐고 첫 일주일(10월5~11일) 대비 둘째 주(10월12~18일) 정산 규모가 46% 이상 늘어날 정도로 당일 발송 상품 판매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11번가 '빠른 정산'은 주문 당일 발송



으로 고객에게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준 판매자를 위해 마련한 서비스다. 고객이 상품을 주문 결제한 뒤 2~3일 만에 정산을 받게 돼, 일반정산 대비 7일 정도 앞당겨 정산 받을 수 있다.

당일 발송으로 판매한 금액이 빠르게 정산되니 판매자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주문물량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발송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11번가에서 오후 3시 이후 주문해도 당일 발송되는 상품 수는 약 540만 개로 '빠른 정산' 도입 전 대비 약 13.5% 증가했다.

주문 후 발송이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게 고객에게 전달되는 속도도 빨라졌다. 11번가에서 주문 후 배송완료까지 7일 이상 걸리는 상품 수는 전체 1% 수준으로 감소했다.

11번가 이상호 사장은 "11번가는 수수료 없이 업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정산을 제공하면서 이를 통한 판매자 분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효과를 경험했다"며, "결국 e커머스가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상생의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11번가 '오늘 발송' 서비스는 오늘 주문하면 주문 당일 바로 발송하는 보다 빠른 쇼핑 서비스다. 최근 일주일 간 주문 당일 발송을 이행한 비율이 99% 이상인 판매자의 상품만 '오늘 발송'으로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T&G '릴 하이브리드 2.0' 일본 출시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과 협업

KT&G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글로벌 협업을 통해 일본에 권력형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 2.0(lil Hybrid 2.0)' 및 전용스틱 '믹스(MIIX)'를 10월 26일 출시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이어 3번째 출시국인 일본은 권력형 전자담배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전자담배 시장은 글로벌 제조사들의 치열한 경쟁과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시장은 '릴 솔리드(lil solid)'가 출시된 러시아·우크라이나와 달리 '릴 하이브리드 2.0' 및 전용스틱 '믹스'가 출시된다. 최초 판매 제품은 '매트블랙(MATTBLACK)', '코발트블루(COBA LT BLUE)', '프리즘하이트(PRISM W



일본에 판매되는 KT&G '릴 하이브리드 2.0' 디바이스 패키지 및 전용스틱 3종 '믹스 레귤러(MIIX REGULAR)', '믹스 아이스(MIIX ICE)', '믹스 믹스(MIIX MIX)'. /KT&G

HITE)', '메탈릭브론즈(METALLIC BRONZE)' 4가지 색상의 디바이스와 '믹스 레귤러(MIIX REGULAR)', '믹스 아이스(MIIX ICE)', '믹스 믹스(MIIX MIX)' 전용스틱 3종이다. PMI는 이전 출시한 국가들처럼 일본 시장에서도 KT&G 제품 판매를 전담하게 되며, 제품 출시는 후쿠오카 현, 미야기 현 등 2개 지역에서 먼저 선보인다. /조효정 기자

AGE 20's 허니버터 아몬드 에디션

생활뷰티 기업 애경산업의 화장품 브랜드 AGE 20's(에이지 투웨니스)에서 허니버터 아몬드의 캐릭터



를 디자인에 담은 'AGE 20's X HBAF 허니버터 아몬드 에디션(사진)'을 출시한다고 21일 전했다. AGE 20's X HBAF 허니버터 아몬드 에디션은 K-뷰티 팩트의 원조 'AGE 20's 에센스 커버팩트'와 K-아몬드 대표 길림양행 HBAF의 '허니버터 아몬드'가 만나 탄생한 시즌 한정 리미티드 콜라보 에디션이다.

AGE 20's X HBAF 허니버터 아몬드 에디션은 아몬드를 의인화 한 길림양행 HBAF의 주요 캐릭터를 에센스 커버팩트의 케이스 디자인에 담았다.

/원민기 기자 silverbeauty@

KT '디지털-X 서밋'... 디지털 전환 미래 논의

KT 구현모 대표·박윤영 사장 기조연설

KT는 국내외 디지털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 전환의 인사이트를 교환하는 '디지털-X 서밋 2020'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28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엔 KT 구현모 대표와 박윤영 사장을 비롯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 BC카드 임세현 빅데이터센터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를 진행한다.

먼저 KT 구현모 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기업부부장 박윤영 사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KT 구현모 대표는 올해 최초로 열리는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통한 시장 변화와 기회를 KT와 함께 열어가자는 비전을 발표한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 /KT

이어 KT 기업부부장 박윤영 사장이 연단에 나와 그간 KT B2B의 성과와 KT가 보유한 5G,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역량을 활용해 산업별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

한 시장 확대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첫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DX)이 바꾸는 비즈니스 환경'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강연을 마친 후에는 KT 김희수 경제경영연구소장을 좌장으로 DX를 통한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 대한 패널 토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DX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주제로 진행된다. KT 클라우드·DX 사업단의 운동식 전무가 KT만이 가진 DX 플랫폼의 차별화 역량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BC카드 임세현 빅데이터센터장이 AI와 융합하는 빅데이터의 힘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KT의 DX 추진 전략에 따른 파트너사와의 협업에 대해 KT 민혜병 기업사업전략본부장과 협력사들이 발표를 이어간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카뱅 40조 vs 리딩뱅크 17조



기지수첩

안상미 (파이낸스&마켓부)

한카카오뱅크(이하 카뱅) 직원이 퇴사를 했더니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가지고 있는 카뱅 주식을 서로 자기에게 팔아달라는 연락이었다.

카뱅은 지난해 직원들이 주당 5000원에 우리사주를 살 수 있도록 했다. 보호예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퇴사하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물량이 귀하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카뱅 퇴사자를 수 소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가가 화제가 됐다. 인터넷은행의 주가도, 시중은행의 주가도 말이다. 그런데 화제가 된 이유는 정반대다. 한 곳은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은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인식에서다.

먼저 주가 고평가 논란의 주인공 카뱅이다.

카뱅이 기업공개(IPO) 절차에 들어가면서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10만원을 넘어섰다. 단순히 발행주식수 3억6509만주를 곱하면 시가총액은 40조원에 육박한다. 성장성을 고려해 은행 주로는 후한주가순자산비율(PBR) 3배 안팎을 적용해도 시가총

액은 9조원이다. 장외시장 주가가 한참 앞서나간 셈이다.

다음은 시중은행들의 주가다. 금융지주들 가운데 '리딩뱅크'로 꼽히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시가총액도 각각 17조원, 15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PBR은 KB금융이 0.41배, 신한지주가 0.35배로 자산가치만큼 대접을 못받고 있다.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주가가 참담한 수준"이라고 했고,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역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카뱅과 시중은행의 주가를 가른 것은 향후 성장성과 경쟁력이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언택트' 세상에서는 인터넷은행이 더 이상 틈새시장을 노리는 '니치 플레이어'가 아니라 2030세대를 장악한 리딩뱅크가 될 것이란 얘기다.

한 금융지주 디지털총괄 임원을 만났더니 인터넷은행을 평가절하했다. 기존 뱅킹업계가 좀 쉽고 빠르지만 할 뿐 시중은행이 따라하지 못할 새로움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 안이한 인식이 문제다. 아주 조금 더 쉽고, 빠르다는 이유로 고객은 카뱅 앱을 깔고, 다시는 느려터진 은행 앱을 열지 않는데 말이다.

/smahn1@

기보, 부산 공기관과 드라이브스루 자선행사

기술보증기금이 부산지역 공공기관들과 자선행사를 연다. 기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일깨우고 부산지역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단체 세이브 더칠드런, 부산지역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부산항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드라이브스루 자선행사인 '다함께 차차차'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31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될 '다함께 차차차' 행사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부산시민들이 함께 '차를 타고, 차칸 마음을 전하는, 차칸 소비를 하자'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어민들을 돕기 위해 채소, 과일, 잡곡, 수산물 등을 꾸러미별로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으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부산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10월 22일 (음 9월 6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큰 이익을 놓친다. **48년생**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도 만족을 모른다. **60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72년생** 지나친 관심은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84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대화에 주의.
- 37년생**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행동. **49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61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인부를 챙겨라. **73년생** 상대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지 마라. **85년생** 어디서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다.
- 38년생** 황금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장식. **50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해야. **62년생** 나의 약점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74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86년생**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 39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찌하겠나. **51년생** 오랜 친구 병문안 갈 일이 있다. **63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75년생** 모르는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87년생** 늦지만 남들을 이롭게 한다.
- 40년생** 버릴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 **52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64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 **76년생** 독단적인 일처리로 타인의 원망을 듣는다. **88년생** 레일을 벗어나지 말고 걸려라.
- 41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53년생** 이동 운이니 산소방문도 무탈. **65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77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 **89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다리면 된다.

- 42년생** 두드러도 열리지 않으면 애쓰지 마라. **54년생** 그럴듯하게 포장을 잘해야 한다. **66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78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조금 더 노력. **90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일도 풀린다.
- 43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하라. **55년생** 가족에게 자신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하다. **67년생**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생각. **79년생** 돌다리도 두드리는 길도 물어서 가라. **91년생** 한 번에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 44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56년생** 원하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나 복병을 조심. **68년생** 자식 때문에 근심이 많다. **80년생** 결론은 내 뜻대로 밀고 나간다. **92년생** 흘러간 세월을 그리워 말고 내일을 준비.
- 45년생** 기죽지 말고 살아라. **57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69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다시사라. **81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93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 46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58년생** 민망한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맞서라. **70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쁨이 온다. **82년생** 결심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94년생** 초심을 생각하고 힘내라.
- 47년생** 마음을 굳게 먹고 포기. **59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하 하루. **71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83년생** 당신 자신을 등돌보심아 앞으로 나가라. **95년생** 어린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게 되니 이익.



김상희의四季 고부간 갈등 심한 편인살(1)

시아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대라 감히 편인살을 논하기가 맞지 않는듯하다. 오히려 할 말 다하고 수틀리면 남편과 아이들만 시대에 보내며 자기 편한 위주로 하는 며느리들이 대세인 까닭이다. 좋은 뜻으로 말을 해도 고깝게 듣는 며느리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를 일러 필자는 후천운의 질서에 편입한 지구촌의 현대상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가끔은 시집 기운에 놀려 얼굴이 어두운 며느리들도 보게 되는데 며칠 전 상담을 온 L여인이 그 경우였다. L여인의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 같은 분이 없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아들이라면 끔찍이 여기며 온갖 정성을 다 쏟는 어머니이니 어머니에 대한 아들들의 생각이 다 그러할 것이다. 특히나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그런 존재다. 자애롭고 아들이라면 목숨마저 내놓을 듯 희생과 사랑의 대명사인 어머니는 며느리에게는 매운 고추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심리학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것이 다양하지만 L여인의 시어머니는 그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이중성을 지닌 분이다. 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며느리인 자신에게도 부드러운 말투와 교양 있는 어른의 모습이지만 며느리만 있을 때는 눈까지 흘려가며 공연한 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성질에 못 이겨 욕까지 다반사라는 것이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그럴 때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지혜롭고 자상한 분인데 무슨 그런.. 그리고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시는데." 하는 반응이다. 이에 더 이상 말도 못하겠고 주말만 되면 시댁에 하루이상 보내고 와야 하는 것이 고역이 되었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작 출간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별판 브라운 저 | epress | 15,000원

정답

8	7	8	7	4	9	9	6	1
6	9	2	3	1	9	2	7	8
4	9	3	1	8	8	7	6	9
2	9	1	3	6	7	6	9	8
8	7	4	1	9	6	8	2	3
9	6	8	2	7	9	3	1	4
2	3	4	9	6	8	6	7	9
9	1	8	6	7	3	4	1	8
8	7	9	8	9	2	1	9	6
1	8	2	9	6	8	3	4	7
3	6	4	9	8	9	7	8	1

새로운 고난이도의 워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55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657호

‘화장품계 덮죽덮죽?’... 올가휴 vs 김우리샵 결국 소송전

올가휴 아로마오일 표절 주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 고소

김우리샵-제조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맞대응’
“전혀 다른 제품, 이미지 타격 커”



논란이 된 올가휴(왼쪽)와 김우리샵의 제품

유명 스타일리스트 겸 방송인 김우리가 중소기업 업체 화장품을 무단 도용, 판매했다는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번질 태세다.

중소 화장품 브랜드 올가휴는 지난 20일 자사의 천연 아로마오일 제품(아로마틱 로제 팜프)을 무단 도용 및 판매했다며 김우리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김우리가 운영하는 김우리샵은 올가휴를 명예훼손과 문서 조작 혐의로 고소한다고 맞받아쳤다.

김우리샵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 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올가휴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올가휴의 법률대리인 변승국 변호사는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 관계 및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김우리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외 혐의로 고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올가휴가 제기한 혐의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우리샵 측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된 두 제품의 제조원인 이노맥스 측은 “해당 제품을 ‘기능성 오일’ 이라기 보단 ‘향수’로써 제작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제품의 주요 특징이 되는 향의 종류를 바꿨으니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노맥스는 성분 한두 가지와 성분 표기 순서만을 바꿔 교묘하게 다른 제품이 것처럼 눈속임 했다는 올가휴의

입장에 대해 전혀 다른 제품(로타니카 힐링 오일)으로 만들어 코트리 측에 제공한 일밖에 없다며 일축했다. 코트리는 판매사인 김우리샵에 제품을 제공한 업체다.

또한 이노맥스가 지난주 올가휴에 전달했던 사과문에 대해서는 “로제 팜프를 타깃으로 동일한 콘셉트로 카피 제품을 생산”했다는 문장의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번복했다. 사과문을 쓴 고재일 이노맥스 영업이사는 “제품을 계약하고 개발하다보면 항상 어떤 타깃을 두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두고 표절했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고씨는 자신은 이노맥스의 대표가 아니라며 사실상 사과문의 효력이 없다고 괴력했다. 올가휴는 고씨가 이노맥스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해

당 제품의 거래를 주도한 관리자라고 주장했다.

김우리샵은 “브랜드사인 코트리가 문제 제품을 제안해 김씨가 디렉터로서 아이디어를 덧붙인 것뿐 (제품을) 먼저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바 없다”면서 “제품 판매를 통해 일정 부분 수수료만 받고 있어 큰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올가휴가 작은 회사인데 피해를 입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오히려 김씨에게 이미지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자료를 수집 중이며 법정에서 모든걸 밝히겠다”고 말했다.

두 회사 간의 법적 공방으로 치달은 이 사건은 올가휴가 화장품계의 ‘덮죽덮죽’ 사태를 호소한다며 기자들에게 김씨를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특별한날, 연말엔 나만의 파티룸서 호캉스” 셀럽샵 에디션, 프리미엄 소재 코트 강화

롯데호텔월드 ‘파티 온 마이 온’
파티용품, 와인, 꽃배송 패키지

롯데호텔 월드가 기념일에 파티룸을 꾸미고 ‘추억 소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파티 온 마이 온(Party On My Own)’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이 패키지는 자신만의 파티룸에서 특별한날을 축하하고픈 이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다. 집 이외의 장소에서 기념일을 축하하기가 망설여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안심하고 파티를 즐길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번 패키지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의 예약만으로 파티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파티용품선과 아크릴 펜, 그리고 파티에 빠질 수 없는 와인과 치즈도 특전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추억의 순간을 남겨줄 즉석 사진기도 필름과 함께 무료로 대여할 수 있어 파티 준비가 간편해진다.

특히 시그니처 서비스로 선보이는 꽃다발 배송 서비스가 이색적이다. 그간



롯데호텔 월드의 기념일 위한 ‘파티 온 마이 온’ 패키지 참고사진. /롯데호텔

호텔업계에서 객실로 꽃다발을 전달하는 상품을 흔히 선보여 온 것과는 달리, 롯데호텔 월드는 업계 최초로 투숙을 마친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꽃다발을 전달해주는 ‘추억 소환 서비스’를 도입했다.

롯데호텔 월드 관계자는 “파티가 끝난 후의 일상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행복의 여운으로 로맨틱한 기념일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향후 더 다양한 방식의 추억 소환 서비스로 호텔 안팎을 가리지 않고

고객 감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상기 모든 혜택과 더불어 디렉스룸 1박과 2인 조식까지 포함된 파티 온 마이 온 패키지는 23만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 가격)부터 예약 가능하다. 3단 카나페와 사진 인화 등의 서비스도 유료로 추가할 수 있다. 패키지는 체크인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패키지 이용 시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라세스 식사권 2매도 증정한다. /원은미 기자

CJ ENM 오쇼핑 ‘캐시미어 100%’

CJ ENM 오쇼핑부문의 자체 패션 브랜드 ‘셀럽샵 에디션’이 올 겨울 프리미엄 소재의 코트 판매를 강화한다. 이태리 유명 원단 회사의 고급 소재를 사용했고, 100만원 넘는 가격의 고가 상품도 선보인다.

대표 제품은 캐시미어 100% 소재의 프리미엄 코트다. 유럽 내 텍스타일 개발과 제조 선두 기업인 이태리 ‘콜롬보(COLOMBO)’사의 캐시미어 원단을 사용했다. 이 회사는 연간 약 30만 미터 이상의 캐시미어 원단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업체로, 캐시미어 외에도 비큐나, 밍크 등의 최고급 의류 원단을 제조하고 있다. 옷의 원단 수급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두 이태리에서 진행된 100% 메이드 인 이태리(made in Italy) 직수입 상품이다. 오쇼핑부문은 셀럽샵 에디션의 이 프리미엄 코트를 120만원 대에 판매할 예정이다. 상품은 CJ 오쇼핑을 통해 10월 말 론칭한다.

이태리산 원단을 사용한 테디베어 코



콜롬보 캐시미어 코트

트도 선보인다. 일명 ‘뽀글이’로 불리는 모 혼방 소재의 옷으로, 테디베어처럼 털이 복슬복슬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이 코트는 테디베어 원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태리 ‘메이플(MAPLE)’사의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장점을 갖췄다. 완제품 생산까지 모두 이태리에서 진행된 후 한국에 들여왔다. 힙을 덮는 길이의 하프 코트 스타일이며, 카멜, 그레이, 핑크, 블루 등 발랄하고 귀여운 색상 위주로 기획됐다. 가격은 60만원 대로, 11월 초 출시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뭉툭고양이
가을 신상 ‘자수 토트백’

엔캣의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뭉툭고양이’가 가을 날씨에 어울리는 ‘자수 토트백(사진)’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 자수 토트백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겸비한 아이템으로 그린, 네이비, 브라운, 그레이, 블랙 등 총 5개의 컬러로 구성돼 있다. 다운톤 된 색감으로 어느 코디나 매치하기 좋으며, 전체적으로 단순한 디자인에 꽃무늬 포인트를 쥘 스타일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원은미 기자

남양유업, 소아과 선생님과 ‘육아 토크쇼’

30일 인스타그램 IGTV서 진행

남양유업이 오는 30일 인스타그램 IGTV 방송을 통해, 엄마들이 육아를 하면서 생기는 소아과 관련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한 ‘랜선 임신육아교실’ 소아과편을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두근두근 랜선 임신육아교실’에서는 세란병원, 올리비움 산후조리원의 조연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출연해, 아이 건강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해 줄 계획이다. 임신육아교실 MC 개그맨 한상규와 소아과 전문의의 토크쇼를 통해, 영아산통 및 황달 등 아기가 아파 소아과를 방문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엄마들의 궁금한 점들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본 방송 이후 당일 3시 15분부터는 남양 ‘임신육아교실’ 인스타그램 계정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전 신청 회원들 중 라이브 방송 참여자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진행한다. 경품으로는 카시트, 조이비 놀이 텐트, 젓병 소독기, 베베슈물티슈, INB 젓병, 남양유업 콤포트케어, 남양유업 맛있는 두유 등 각종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이 준비가 되어 있다. 경품 추첨을 위한 사전 신청은 21일부터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남양아이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랜선 임신육아교실은 외출이 어려운 가운데 누구나 집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고 편하게 육아교실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디딤, 중식 주점 프랜차이즈사업 공동진행

오가푸드와 ‘츠츠허허’ 운영 맞손

외식 기업 디딤과 주식회사 오가푸드의 중식 주점 브랜드 ‘츠츠허허’가 프랜차이즈 공동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급스러운 중화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술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츠츠허허’의 프랜차이즈 확대를 위해 양사가 힘을 합치자는 의견에 따라 진행됐다.

디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츠츠허허는 지난 2018년에 오픈해 현재 수도권에 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디딤은 업무협약에 따라 츠츠허허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주점 프랜차이즈 미술관, 레드문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 운영에 대한 경험



오가푸드 오충현 대표(왼쪽)와 디딤 이범택 대표가 프랜차이즈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츠츠허허도 추후 수도권을 넘어 전국 매장 확대 및 브랜드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디딤이 최적의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K-HANDMADE FAIR



Hand to Heart

핸드메이드 페어

K-HANDMADE
FAIR 2020

11. 19 (목) ~ 22 (일)
서울 코엑스 / COEX, SEOUL

- 기획전시

- 아티스트 팬덤전 Artist to Fandom
- 체험 라운지 Workshop to Opportunity
- 자재·재료 특별관 Professional & Specialized
- 아티스트 PR 기획관 Preview & Promotion

광주송정역 수요예측 엉터리... 조기증축 절실

예측보다 이용객 3배 많아 혼잡 도시활성화로 이용객 증가 예상 국토부에 증축 국비 요청 미반영



광주 송정역 /연합뉴스

광주역이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광주 송정역의 이용객에 대한 수요 예측 실패로 주차난·교통체증 심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1월 교통영향평가 결과 일 평균 이용객은 광주역 6446명, 광주송정역 8785명으로 예측됐다.

이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5년 증축했지만 실제 3배 가까운 2만5646명(2019년 12월 기준)이 이용해 '엉터리' 수요 예측이라는 주장이다.

광주 송정역은 2015년 4월 KTX와 2016년 12월 수서SRT 개통으로 주말

(금·토·일) 이용객 기준 1일 평균 2015년 5913명에서 2016년 1만 6164명, 2017년 2만 2504명, 2018년 2만 4507명, 2019년 2만 564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울산역의 경우 주말 이용객 1만7151명으로 광주송정역보다 이용객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연면적은 9167㎡, 대합실 2881㎡(3개소), 주차장 1032면을 확보하고 있다.

또 오송역도 1만9803명이 이용하면서 연면적 2만65㎡ 대합실 5408㎡(6개소) 주차장 1989면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송정역은 2만 5646명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오송역의 1/4에 불과한 연면적 5754㎡와 대합실 1738㎡(2개소), 주차장 608면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송정역과 비슷한 규모인 오송역과 비교하면 1인당 연면적 1.01㎡ 대비 0.22㎡에 불과하고 대합실 면적 또한 1인당 0.27㎡에 비해 0.07㎡로 전체적으로 1/4규모 수준이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이어 경전선 개통,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 활성화 등으로 하루 3만명 이상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조기 증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협소한 송정역을 방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즉각 국비를 반영하고 증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광주 송정역 증축과 관련 2021년 국비 20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경북도 '수산인의 날' 포항서 열린다

내년에 열리는 '제10회 전국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가 포항시로 재 선정됐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제9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당초 포항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돼 내년 기념행사 개최지로 포항시가 재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수산인의 날은 1969년 어민의 날로 시작해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됐다. 2011년 다시 어업인의 날로 부활한 이후 2015년 6월 제정된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인의 날'로 명칭을 바꾼 바 있다. /포항(경북)=문봉천 기자



청량산

경북 도립공원, 대형버스제한

팔공산 등 4곳, 코로나 재확산 방지 다음 달 15일까지 방역·수시 점검

경북도가 단풍철 행락객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도립공원 4곳(팔공산,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에 대형버스 이용을 금지한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단체탐방을 제한하기로 하고 도립공원 주차장에 대형버스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정상부, 쉼터 등 주요 탐방 밀집지점에 탐방객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탐방객을 대상으로 입산 전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을 위해서는 야외에서 머물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2m 이상 거리두기(탐방 시 탐방로 한줄 통행 등)를 지키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원별 관리사무소는 주차장, 탐방로 입구 등 단체탐방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지침 준수 등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단풍철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지침을 꼭 준수해 달라"며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도립공원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문봉천 기자 newsmun@

울진 한울원전 6호기, 100% 출력 도달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6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100% 출력에 도달했다.



한울원전 6호기, 계획예방정비 마치고 100% 출력 도달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한울6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지난 18일 발전을 재개해 20일 오후 8시 30분쯤 100% 출력에 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울6호기는 지난 7월 24일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었다.

한울본부는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연료교체 및 CO₂ 소화설비 성능개선 등 각종 설비점검·정비를 수행해 발전 설비의 신뢰성을 향상했다.

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수검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9일 있었던 원자로 정지 관련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발전소 제어계통의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등 정상운전을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울진(경북)=김귀열 기자

전남농업기술원 흑염소산업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체계적 개량·육종 확립 등 연구 대사성질병 등 문제 해결 기대

전남농업기술원은 전국 최초로 흑염소 산업을 축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사업 국비 44억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30억원을 더해 총 74억원을 내년부터 3년 간 투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한 전문 축산연구기관인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가 주도한다. 축산연구소는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연구 성과의 농가 실용화·산업화를 높이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전남대, 순천대, 도축·가공업체, 염소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그동안 흑염소 농가가 꾸준히 주장해 온 체계적인 개량 및 육종 확립, 거세 시기와 사양 관리 표준화, 전용사료 개발, 탕 위주에서 세대별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누린내 제거기술 개발 등이다.

사업이 성과를 내면 흑염소의 육량을 늘리기 위해 농가가 외국종과 무분별한 교잡을 하며 발생한 대사성질병, 장기간 근친교배에 따른 면역력 저하와 생산성 하락, 불법 도축과 수입산 둔갑 판매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최근 흑염소 고기가 웰빙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소비 형태가 약용에서 육용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흑염소 연구를 통해 흑염소고기 유통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흑염소는 귀농·귀촌인 증가와 소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해 급속도로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00년 5만1000농가에 45만 마리였던 사육 마릿수가 10년 만인 2019년에 1만5000농가, 57만 마리로 3만6000농가가 줄고 12만 마리가 증가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예천군수, 산물벼 수매현장 찾아 소통행정

농민들 격려·애로사항 청취

김학동 예천군수는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산물벼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산물벼 생산 농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정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5개소 RPC(개포 RPC, 청북 DSC, 용궁 DSC, 지보농협 DSC, 남예천농협 DSC)에서 2020년 공공비축미곡 산물벼를 수매하고 있다.

올해 매입 물량은 40kg 기준 31,000포대이며 매입곡종은 일품벼로 매입 후 중간 정산금 3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역점을 뒀 농민들이 안전하게 벼를 출하할 수 있도록 매입장 내 모든 인원이



김학동 군수가(우측 세번째) 산물벼 수매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 격려하며 애로사항 청취하고 있다. /예천군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을별 출하 일정을 다르게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김 군수는 산물벼 수매가 한창인 현장을 몸소 느끼고 농민과 함께하는 '농업 행정'을 위해 팔을 걷으며 올해 쌀 작황과 매입 상황 등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만나 시름을 위로했다.

/예천(경북)=문봉천 기자

부산시

신보재단 이사장에 김승모 (전 BNK저축은행 대표)

부산시가 부산 신용보증재단의 제10대 이사장으로 김승모 전 BNK저축은행 대표 이사(사진)를 임명했다.



김승모신임부 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1959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은행에 입행한 이래 40여년 외길을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걸어온 금융전문가로서 지역의 금융 현안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모는 지난 9월 12일 전임 이병태 이사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됨에 따라 진행됐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1일부터 시작되며 임기 만료는 2022년 10월 20일까지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경북봉화교육지원청

'With Wee' 멘토링 운영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Wee센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오는 12월 6일까지 'With Wee'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업중단예방의 일환으로 맞춤형 멘토-멘티를 결성하여 10회기 동안 멘티의 정서적 지원과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With Wee'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멘토는 지역의 상담 전문자원으로 구성하여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 추가적 심리지원과 활동이 필요한 멘티를 대상으로 방과 후 찾아가는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활동은 정서지원, 대인관계, 진로탐색, 학습지원 등 멘티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개인의 감정을 설계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목적이다.

/봉화(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라이프]
옷·SW는 물론
데이터·적금까지
없는게 없는 편의점
니



Life

[바이오]
독감백신 접종
사망자 9명
'백신 공포증' 확산
L2



문화·운동으로 '토닥토닥'... 서울시·자치구 마음방역 나선다

서울시 문학비축기지서 랜선공연 강남구 가족 공동체 의식 강화 지원 중구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 제공 서북병원 전직원 대상 '나만의 도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시립병원이 마음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시와 강남·중구, 서북병원에 따르면 코로나 블루(우울감) 극복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우선 시는 오는 12월 공연 속 랜선 공연 '공간을 노래하다'를 선보인다. 시는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의 공연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공연 관람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시는 "문화비축기지의 공간 특징과 다양한 소리가 어울려 즉흥적으로 창작하는 소리 공연을 비대면 랜선으로 운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서울시

영한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공연 속 공연예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씨어터 몸 소리는 목소리를 활용해 공연을 창작·발표하는 단체다.

문화비축기지 T1에서는 '파빌리온의 노래'가 무대에 오른다. 엄마의 자궁과 같은 유리 파빌리온의 내부 공간을 자장가로 탐험하며 고요함과 평화, 휴식, 치유의 기분을 체험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공연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불러주던 '둥기 둥기' 하며 열려주는 소리로 시작한다. 이어 숲에서 썩임불 소리와 함께 이국적인 음색의 자장가가 흘러나오고 맥박처럼 반복되는 기타 선율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마무리된다.

문화비축기지 T4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의 노래'를 만나볼 수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 탄생한 문화비축기지 T4는 도시와 자연, 과거와 현재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동굴로 탐방을 떠난 듯한 움직임과 주변에서 들리는 다양한 음악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아트스페이스에서는 '용궁의 노래'가 시민들을 맞이한다. '빛의 바다 소리를 만나다'를 주제로 아이와 엄마가 소리 여행을 떠나는 컨셉의 공연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 9, 16, 23일 영상을 촬영해 12월 2일 이후 랜선 공연 '공간을 노래하다'를 문화비축기지 '아트앤스토

리'에 게시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11월 6일까지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가족과 스무고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구는 가족구성원 중 한명과 함께 주어진 20가지 질문지를 작성해 제출한 학생 100명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로 구성된 방역 꾸러미를 제공한다. 참가 희망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가족구성원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청소년의 심리 정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중구는 내달 26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인 블루터치 운동 '오늘부터 1일'을 시행한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고립된 정신질환 대상자에 맞춤형 비대면 신체기능 개선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는 "이동의 제한 없이 정신질환 만성화에 따른 손상을 회복하고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면서 "정신장

에 대상자의 부정적인 정서와 스트레스 감소로 정신건강이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서수도사업소와 서북시립병원인 직원들을 위한 마음건강 챗기에 힘을 쏟는다. 강서수도사업소는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실과 고충상담을 운영한다.

사업소는 "코로나19 관련 상담건수가 누적 40만3432건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심각하다"며 "메일, 전화, 대면 등의 비공개 상담으로 업무처리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공감, 치료·해결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립 서북병원은 이달 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만의 도서'를 지원한다. 독서를 통한 코로나 우울감 극복을 목표로, 1명당 1권씩 읽고 싶은 도서를 권당 2만원 내 범위로 지원한다.

서북병원은 "코로나19로 고군분투 중인 직원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나만의 도서로 기쁨을 얻고 삶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무단 방치' 키포드... 지하철역 인근 거치대 설치

서울교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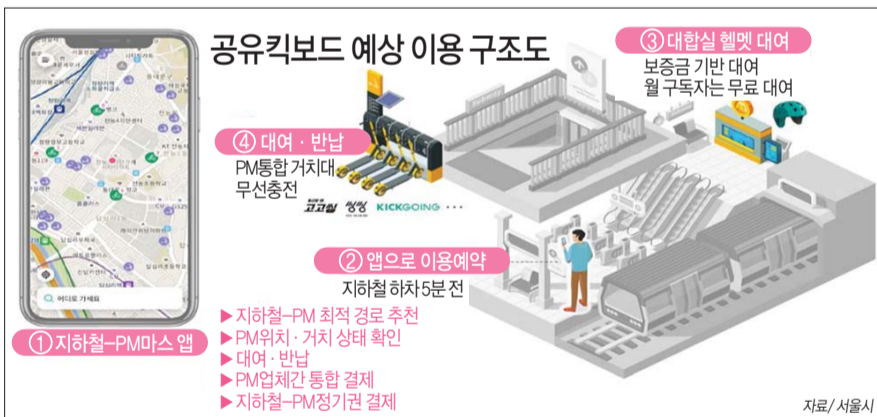
공유키포드 주차·안전문제 해결

서울 지하철역 주변에 공유형 전동키포드를 주차하고 충전하는 시설이 생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3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케이에스티인텔리전스(KSTI)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동키포드 노상주차와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역 인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KSTI는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부지에 전동키포드 충전거치대와 헬멧 대여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는 부지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맡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년 중 1~



5개 역사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환승 할인처럼 지하철을 타면 키포드 요금을 깎아주거나 버스-키포드 연계이용권을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KSTI는 이를 위해 여러 키포드

공유업체의 예약·결제 기능을 하나로 합친 전문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KSTI의 안정적 거치대와 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역사 근처에 방치돼 있던 공유 키포드가 정리된다"며 "안전과 편의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포스트 코로나 도시재생의 미래 논의

22~23일 '도시재생 국제 콘퍼런스'

서울시는 이달 22~23일 '2020 서울 도시재생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국·영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회의 참가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도시재생의 미래와 전략'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도시재생의 가치와 비전을 조명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한다. 또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번 행사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의 '어반 옥토퍼'와 연계해 진행된다. 유엔 해비타트는 각 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협력해 도시개발과 도시재



생,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반 옥토퍼는 유엔 해비타트가 파트너 국가·도시·기관과 함께 매년 10월 전세계에서 추진하는 행사·활동이다.

22일 오후 2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서정형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도시 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재생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도시공간을 전환할 창조적 해법의 하나로 '커뮤니티'의 가치에 주목하고, 서울형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를 제시한다. /김현정 기자

파주 '헤이리 여행스테이션' 오는 24일 개장

관광정보·휴식공간 제공

파주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헤이리 여행스테이션이 오는 24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고 21일 밝혔다.

헤이리 여행스테이션은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필요한 관광정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4월 조성됐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정식운영 시기가 늦어졌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에 따

라 정식운영을 시작하고 이에 맞춰 기념 방문행사도 진행된다.

방문행사는 10월 24일 토요일부터 11월 1일 일요일까지 9일간 진행되고 일정조건 충족 시 헤이리 기념품 증정, DMZ 평화 꽃반지 만들기 체험(10.31.~11.1.) 등 준비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행사기간 동안 헤이리 갈대광장에 위치한 여행스테이션(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을 방문하면 된다.

/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한국노바티스 바이오·디지털헬스 우수기업 발굴한다

서울시는 한국노바티스와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헬스엑스첼린지 서울'을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바이오·디지털헬스분야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7년 미만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헬스엑스첼린지 서울 공식 페이지에서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22일 (木) 음력 : 9월 6일

수도권 날씨 13~18°C

운중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47 | 해질 / 17:46

지역별 날씨: 연천 11/18, 동두천 11/18, 가평 8/18, 파주 10/17, 서울 13/18, 양평 10/18, 인천 14/17, 수원 13/17, 용인 13/17, 평택 9/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SAMSUNG

반가워요!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드디어 이사하는 날
집이 어떤 구조라도 괜찮아요
당신의 공간에 딱 맞는
그랑데^{SI}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
SI로 맞추다
삼성 그랑데^{SI}



새로운 시작, 삼성 그랑데^{SI}가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용량의류케어 톱큰혜택 2020.10.1 - 2020.10.31

삼성 그랑데^{SI} [24kg 세탁기+17kg 건조기] 및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 동시구매시, 삼성 에어드레서 대용량 구매금액을 돌려받는 효과 (170만 포인트/캐시백)

※ 20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 의무건조기, 드럼세탁기 품목 신고 기준 ※ 행사 대상 제품(삼성 그랑데^{SI})은 올인원 컨트롤 모델에 한함 ※ 일부모델 제외 ※ 에어드레서 대용량 리얼볼레(DF10T9301KG) 삼성닷컴 혜택가 기준 ※ 매장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행사모델 및 사은품 등 상세 내용은 매장 내 판매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본 행사는 행사매장 내 행사모델 구입시에 한하여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매 취소 및 반품 시 해당 혜택 및 사은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삼성전자 멤버십 고객대상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가전을 나답게.